

미국헤게모니 형성기 동아시아 국가간체계 질서의 변동: 월러스틴의 이론 자원으로 검토한 냉전 형성 과정과 중국 변수*

백승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차대전을 계기로 영국헤게모니에서 미국헤게모니로 전환하는 국가간체계 질서의 전환이 본격 추진되며 여기에 동아시아의 지정학과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이라는 역사 과정이 맞물려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이 역사과정을 조명하려면 개별 국가별 설명이 아니라 '유라시아대륙 전체'의 변동이라는 공간적 관점이 필요해진다. 동아시아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겪은 독특한 역사적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비유럽적인 동시에 유럽적인 특징을 지닌 일본의 독특한 경험과 그에 대한 인근 국가들의 '동류화'의 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동류화 시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의 국가건립 과정인데, 근대 국가 수립에 미달한 20세기 초 중국은 미국-소련-일본-독일의 지정학적 역학의 작동 속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소련의 대 중국 정책은 그 자체가 한편에서 국민당-공산당의 대립 속에서 형성되는 중국 근대 국가 수립의 중요한 '내부 요인'으로 작용했고, 다른 한편에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위한 소련-미국 협력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늘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제어 동아시아, 국가간체계, 동류화, 루즈벨트, 스탈린, 마오쩌둥, 중국 혁명, 사회주의, 통합적 비교

I. 20세기 동아시아 국가간체계의 질문

1. 국가간체계 변동의 동아시아적 함의

월러스틴은 사망 직전 쓴 마지막 500번째 시평에서 이런 예측을 남겼다.

근대 세계체계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누군가 어떤 집단이 1968년 복합체를 변혁적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3079318). 이 논문의 초고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한국사회학회가 공동주최한 월러스틴 추모 토론회 <세계체제,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이매뉴얼 월러스틴을 기리며>(2020년 10월 20일)에서 발표되었다. 이광근 교수의 논평과 익명의 심사자 두 분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린다.

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 나는 변혁을 달성할 가능성을 50 대 50으로 보지만 그 의미는 50 대 50일 뿐이라는 것이기도 하다.¹

월러스틴은 근대세계체계를 분석하는 엄격한 학문 작업이 결코 정치적·윤리적 입장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남겼다(월러스틴, 1999; 2001: 279-303). 21세기 들어 세계체계의 위기 또는 월러스틴이 지적하듯 ‘분기의 조짐’은 더욱 분명해지는 듯하다. 오랫동안 ‘산업사회’나 ‘시장경제’에 밀려났던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데서 확인되듯 세계경제로서 자본주의 체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위기의 모습은 급격한 붕괴가 아니라 돌파구 없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며 “조종을 올리는” 모습을 띠 수도 있다(슈트랙, 2018). 관리주의가 자본주의를 일부 구원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20세기 황금시기를 되풀이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Dumenil and Levy, 2018). 브렉시트에 뒤이은 트럼프의 등장과 미-중 대립, 코로나19 대처를 둘러싼 전 지구적 혼란을 겪으며 20세기의 미국 헤게모니하의 세계질서가 처한 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이 가운데 월러스틴이 이미 196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강조한 지구문화로서 자유주의의 위기(월러스틴, 1996)는 세계 전반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다.

세계시장과 국가간체계가 맞물리는 방식에 대해 아리기(Giovanni Arrighi)는 ‘신호적 위기’와 ‘최종적 위기’를 구분하고 앞선 헤게모니 질서의 위기로서 후자 이후의 시기를 ‘체계의 카오스’라 규정하였다(아리기, 2014). 월러스틴은 이 ‘체계의 카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지만(월러스틴, 1999) 아리기의 용어법에 대해서는 유보적·비판적이며 그 함의를 체계의 구조적 위기와 진정한 분기에 한정해 사용하고자 했는데,² 지금 상황이 월러스틴적 의미에서 진정한 ‘체계의 카오스’에 진입하는 국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월러스틴이 늘 강조하듯 ‘체계의 분기’에 처해 있는 시점에 세계를 좀 더 나은 쪽으로 전환하기 위한 집단적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월러스틴, 1999; 2001; 2005). 그러기 위해서는 월러스틴이 근대세계체계의 구성요소로 분석하였던 핵심 내용으

¹ <https://www.binghamton.edu/fbc/commentaries/index.html>

² 1999년 페르낭 브로델 센터에서 필자의 질문에 대한 월러스틴의 답변.

로 돌아가 어디서 위기가 발생하였고 그것을 과연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더없이 중요할 것이다. 월러스틴의 유산에 기대어 현 시대 세계체계의 변동을 탐색하고 그로부터 한 발 내딛고자 할 때 우리의 출발점은 월러스틴이 근대 세계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세 가지 층위의 질문, 바로 세계경제, 국가간체계, 지구문화라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적 분석의 영역을 구획하는 이 세 층위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백승욱, 2006; 2019c; 월러스틴, 2005).

월러스틴은 ‘근대’를 독립적으로 개별 민족국가별로 발생하고 전개되는 진화·발전의 서사가 아니라 근대세계체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세계체계의 효과와 지배의 확대의 역사로 분석한다(Wallerstein, 1974; 월러스틴, 1999b; 월러스틴, 2005). 이 세계체계라는 구도는 국민국가들을 하나의 통합된 포괄적 분석단위로 묶어 주는데, 그런 다음 분석을 위해 월러스틴이 이를 다시 세계경제, 국가간체계, 지구문화라는 세 층위로 나뉜다. 분절되었던 것을 하나로 다시 묶는 것이 강점이라면 분석 층위를 셋으로 다시 나눈 것은 어떤 이점을 지니는 것일까? 이는 무엇보다 환원주의를 피해 ‘역사적 자본주의’라는 질문을 심화하면서 전체로서의 세계체계를 설명하는 동시에, 변화가 관찰되는 ‘용기(container)’로서 민족국가 또는 그 국가들의 작용을 포괄하는 더 넓은 지역들의 동학에 대한 설명 또한 가능케 하는 접근법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월러스틴 2001; 2005).

한국 사회는 동아시아라는 지역 구도 속에서 이 세 층위로 중첩된 역사적 변동을 겪었고 현재적 위기 또한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경제의 위계 속에서 ‘종속적 발전’ 또는 ‘발전주의’로 시작한 ‘다층적 하청체계’의 중간 고리로서의 축적의 위기이며(김윤태 외, 2017; 박태균, 2013; 윤상우, 2005; 임현진, 1993), 위기의 근대에 대한 ‘재귀적/반성적’ 질문의 출발점의 부재로서 ‘사상사의 부재’로서 반복되는 위기 구조이기도 하지만(백승욱, 2019a; 윤소영, 2020), 국가간체계 속에서 동아시아가 위치한 지정학적 독특성에 기인하는 질서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위기이기도 하다(오코노기 마사오, 2019).

세 층위 모두 현 시점 우리 사회와 관련해 중대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난 한 세기 이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세 층위의 동학과 위기의 역사는 국가간체계의 동아시아적 독특성과 연관되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세계체계 내에서 국가간체계의 동아시아적 하위 동학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그럼에도 지난

100여 년의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한국사회에서는 국제질서의 변동에 대해서 ‘의지주의를 수반한 민족주의적 돌파’라는 한계만 반복해 왔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백승욱, 2019a). 동아시아의 현재 지역적 변화는 한 세기 전과 얼마나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일까. 변동의 전지구적 영향력이 전례없이 커진 상황에서 국가간체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월러스틴이 남긴 유산에서 우리가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 글은 국가간체계에 대한 월러스틴의 분석 구도를 빌려 지난 한 세기 특히 2차세계대전 전후의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세계체계와 국가간체계의 질서 변동 속에서 전개된 특이성으로 고찰해 보려는 목적을 지닌다. 그리고 이를 검토할 때 개별국가를 비교의 단위로 삼을 수 없다는 월러스틴의 지적을 확인하면서 세계적, 지역적, 일국적 변화를 연관 짓는 분석을 시도해 볼 것이다.

2. 미국 헤게모니 형성기 국제질서의 동아시아적 맥락

20세기 동아시아와 관련된 국가간체계 질서의 핵심 특징은 ‘냉전체제의 형성과 변화’일 것이다. 법인자본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뉴딜이라는 미국 헤게모니 구상이 ‘단일 세계주의에서 두 세계주의’로 전환해 가는 과정이 미국 헤게모니 수립과정이었고 그것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착근되는 과정에서 냉전체제가 형성되었다(아리키, 2014). 냉전시기에 이 과정의 결과는 별 이의 없이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탈냉전 시기 이후 이 냉전 형성의 역사를 진영론적 시각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인 역사과정의 분석 대상으로 놓을 수 있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역사 분석의 질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냉전 형성 과정은 미리 예정된 길을 따라 목적론적으로 흘러간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열려 있던 선택지 중 특정한 선택들은 배제되고 다른 선택들이 이어지면서 전 지구적인 구도가 사후적으로 굳어지고 그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의 국가간체계의 구조가 공고화되었던 것이다.

공고화한 냉전 의식과 달리, 1945년 시점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자면 카이로 회담에서 얄타 회담까지 루즈벨트에게 냉전의식은 핵심이 아니었으며(오코노기 마사오, 2019: 51-85), 한반도에서도 1946년 초까지 모스크바는 북한의 미래에 대

해 뚜렷한 계획은 없었다(란코프, 2013: 26). 미국에 의한 일본의 단독 점령이 필연적이었는지(오코노기 마사오, 2019; Guthrie-Shimizu, 2010), 독일 제국의 해체가 아니라 동서독 분단으로 가는 것이 필연적이었는지(Schwarz, 2010), 마셜플랜의 등장과 마셜 플랜에서 소련의 배제가 필연적이었는지(Hitchcock, 2010), 냉전의 동아시아 구상이 미리 준비된 것이었는지(Leffler, 2010; Pechatnov, 2010), 국민당이 아닌 공산당에 의한 중국 대륙의 장악이 필연적이었는지(Gardner, 2008; 楊奎松, 2012; 汪朝光, 2016; 汪朝光, 2010; 陶文钊 外, 2009; 戴茂林·李波, 2017), 한반도 분단이 미리 준비된 것이었는지(오코노기 마사오, 2019) 등에 대해 모두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럼 냉전 형성 시기 우리의 관심인 동아시아에서 그 구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진영론적 필연성’보다는 ‘정세적 설명’을 통해 특이성을 규명하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이다. 루즈벨트를 중심으로 미국 해계모니의 새로운 거대 구도가 등장하는 1941년 이후가 중요한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

1941~1944년 시기 루즈벨트의 전후 세계 질서 구상을 살펴보면, 그 핵심은 향후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가 ‘세계의 경찰’로 전후 세계질서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식민 열망을 버리지 않는 처질을 견제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기에 장제스(蔣介石) 국민당의 중국을 추가해 ‘4강(Big Four)’ 구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3강 또는 4강의 세계경찰 구도를 통해 유지하려 한 전후 질서는 미국이 2차대전에 본격 참전하기 1년 전인 1941년 1월 6일 의회와 미국 국민에게 루즈벨트가 한 연설에서 제시된 ‘네 가지 자유’라는 사상, 즉 “전 세계에 언론 자유, 전 세계에 모든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신을 숭배할 수 있는 자유, 전 세계에 궁핍을 벗어날 자유, 그리고 전 세계에 공포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구상에 기반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소련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 구상은 매우 특이했다. 이후 알타 회담으로 가는 길은 이 네 가지 자유 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강 또는 4강 구도의 구체화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Schaller, 2008: 216-217).³

³ 전후 세계질서에 대한 루즈벨트의 이 구상은 유엔이라는 기구로 현실화했다. 유엔창설 구상에서 4강 주도의 유엔이라는 루즈벨트의 구상은 소국들에 대한 고려를 좀 더 강조한 국무성 차관 섬너

그런데 2차 대전 종전 이후 역사 전개에서 보면 카이로 회담에서 알타 체제에 이르는 최초의 '4강' 구도와 달라지는 두 가지 변화가 관찰된다. 하나는 최초 구상에 없던 프랑스가 등장해 '5강'의 구도에 결합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처음 '4강' 구상에 포함되었던 장제스의 국민당이 주역의 자리를 잃고 마오쩌둥(毛澤東)의 공산당이 점차 부상해 결국 국민당의 자리를 대체하는 데 이르렀다는 점이다. 두 변화는 루즈벨트의 '단일 세계주의(One Worldism)'가 현실의 난점과 부딪히면서 '두 세계주의'의 현실론으로 변용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한 것이었다. 프랑스의 부상은 독일제국을 수많은 소국으로 해체하는 대신 거대한 독일을 신속하게 산업적으로 부흥시키고자 한 결과로 등장한 작지 않은 변화였다(Gardner, 2008: 133-135). 중국의 변화는 장제스를 포함시켜 4강구도를 형성하려 했던 루즈벨트의 구상이 현실이 될 수 없고 대신 아시아에서 미국의 냉전전략 궤도수정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에서(백원담, 2013: 54) 작지 않은 변화였다.

우리가 2차대전의 의미를 19세기 영국세계모니 질서로부터 20세기 미국 세계모니 질서로 전환하는 계기로 이해한다면(아리기, 2014; 월러스틴, 1996; 백승욱, 2006), 우리는 그 결정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1940년대에 19세기적 자유주의 판본에서 20세기적 자유주의 판본으로 국가간체계의 질서가 전환된 함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루즈벨트 버전에서 트루먼 버전으로 바뀌는 과정이 이후 국가간체계 질서에 어떤 새로운 영향을 주고 변형된 궤적을 형성하도록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적 냉전' 구도의 착근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며, 그 설명은 각 개별국가의 내적 특징들의 규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간체계의 동아시아 하위 질서 전체의 맞물림 속에서 전개된 과정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기 동아시아에서는 몇 개의 역사적 흐름이 하나로 결합되어 독특한 정세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이른바 '냉전의 동아시아적 형태'를 규정짓고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글로벌한 '단일세계주의 구상', 그 유럽적 구도와 대비되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구도 차이점의 작동, 동아시아에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중

국-일본, 중국-소련, 중국-미국의 관계의 상호 작용 하에서 형성된 독특한 중첩된 시간성이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정세 또한 이 구도에 의해 크게 제약되고 규정되었다.

이 글에서 우리가 검토해 보려는 것은 서로 연결된 다음 세 질문이다.

첫째로, 20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변동을 이해하려 할 때 개별국가를 비교의 단위로 놓는 전략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동아시아에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오해를 증폭시킬 위험이 크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면서도 그 안의 국지적 변화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둘째로, 서구 ‘제국주의’에 직접 종속되는 길과는 다소 상이하게 진행된 이 지역의 국가들의 형성 논리에서 상호적 영향과 상호적 갈등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한편에서 미국 해계모니 질서의 수립이라는 변화와 다른 한편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진행이라는 변화와 맞물려 어떤 변화를 이 지역에 가져왔는가. 여기서 중국혁명이라는 변수는 왜 중요하게 작용했는가?

셋째,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의 국가간체계 질서는 잘 계획된 수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처음 계획과는 다른 사건들의 중첩 속에서 독특한 궤적을 형성해 간 것인가. 루즈벨트가 구상한 미-영-소의 3강 구도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인가?

II. 동아시아 국가간체계의 공간성과 ‘동류화’의 역사과정: 중국혁명을 중심으로

1. 윌러스틴과 국가간체계의 공간성 질문

윌러스틴은 일찍이 『근대세계체계』 제1권 발간과 동시에 발표한 기념비적 논문인 “세계체계의 등장과 쇠락”에서 사회주의에 대해 발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러시아 혁명의 이유가 세계경제에서 러시아의 구조적 위상이 더 한층 쇠퇴할 위험에 대한 대응 때문이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50년 후에 소련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중심부 권력의 지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제3세계 표면에서 발생한 다양한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들은 어떤 의미일까? ... 혁명 이전 시기의 내적 경제구조 면에서 보자면, 이런 혁명이 발생한 나라들은 숙련된 사람들, 다소의 제조업,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경제 틀 내에서 중상주의적 반(半)-이탈 기술을 활용해 적절한 기간(즉 30~50년) 내에 세계적 분업 내에서 그 역할을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지닌 나라들이었다(Wallerstein, 1974: 100).

이 주장의 함의는 반주변부로 가는 ‘중상주의적 길’로서 사회주의를 선택했다는 테제인데, 우리는 이 주장을 20세기 국가간체계의 동학과 연계시키는 흥미로운 논점이 그 앞에서 제기되고 있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국가간체계 질서의 붕괴를 추동해 현실에서 이들 사회주의 혁명을 가능케 하는 배경이 된 독일과 일본의 도전이다.

일본은 국가 기계가 강력했고, 자원의 토대가 취약했으며(따라서 세계자본주의 세력으로서 이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중심부 지역에서 지리적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반주변 지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 1920년대 독일이 중동과 남미에서 새로운 산업적 거점을 찾기 위해 벌인 다양한 시도는 미국의 추동력과 영국의 지속적인 상대적 힘에 직면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잃어버린 기반을 되찾기 위한 독일의 절망적 추동력은 나치즘이라는 유해하고 성공할 수 없는 형태를 취했다(Wallerstein, 1974: 95-98).

이는 중심부 또는 헤게모니 국가와 연계된 후발 따라잡기 국가의 전략에 대한 질문인데, 이 문장을 다시 읽어 보면서 발견하는 흥미로운 점은 독일과 일본이 당시 연계되어 있던 지역적 공간 조건의 차이점이다. 19세기 후반을 영국 헤게모니의 형성과 그 후속 과정인 영국-프랑스 중심의 자유주의 국가의 수립과 그로부터 확대된 지구문화의 형성으로 규정하고(월러스틴, 2017) 20세기 미국 헤게모니 질서를 자유시장의 ‘지양’으로서 규정한다면(아리키, 2014), 이 사이 시기에 이 두 개의 헤게모니 외곽의 국가간체계의 균열의 틈새에서 전개된 두 개의 후발 자본주의적 도전 국가의 등장은 매우 대조적 맥락하에서 전개되었으며 그림

에도 이는 동시에 두 개의 사회주의 혁명의 시도와 시간적-공간적으로나 그 역동성의 면에서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⁴

찰스 텔리는 역사사회학의 비교역사 연구 방법을 이를 네 가지로 분류하면서, 월러스틴의 방법을 ‘포괄적 비교(encompassing comparison)’의 범주에 포함시킨 바 있다(텔리, 1999). 연결된 하위단위들을 묶는 더 큰 포괄적 단위를 상정함으로써 그 하위 단위들의 동학과 상호 연계된 작용까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으며 ‘내부’와 ‘외부’의 허구적 구분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포괄적 비교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월러스틴 자신은 앞서 언급한 1974년 논문에서 “근대 세계체계 역사의 특정 시점에서 다양한 국가 기계들의 힘을 합당하게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는 유전적-문화적 논점에서가 아니라 그 시점 세계경제에서 그 나라가 떠맡는 구조적 역할이라는 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Wallerstein, 1974: 89)면서 이 ‘포괄적 비교’의 함의를 지적한 바 있다.

세계체계분석 내부 논쟁을 거치며 월러스틴의 ‘포괄적 비교’는 맥마이클과 아리기의 ‘통합적(된) 비교(incorporating/incorporated comparison)’로 발전하였다(McMichael, 1990; 2000; Arrighi, 1999; 아리기, 2014). 맥마이클은 통합된 비교를 “부분이건 전체건 분석 대상의 규정 바로 그 속으로 비교가 통합되는 것”이며 “비교 분석이 역사적 시간을 질문 자체 속으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McMichael, 2000: 672), 조반니 아리기는 “비교는 바로 연구 문제에 대한 정의 속에 통합되며, 비교는 질문틀이 아니라 질문 실체를 구성한다”고 말했다(아리기, 2014: 66).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변동을 연구할 때 월러스틴 방식의 이 ‘포괄적 비교’와 여기서 더 발전해 간 아리기-맥마이클의 ‘통합된 비교’는 유의미한 준거틀이

⁴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현실 사회주의’라는 질문 또한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다. 자본주의 근대 세계에서 ‘사회주의’는 생산양식으로서 자본주의의 지양이라는 질문으로 제기되었는데, 현실의 정치에서 그 사회주의 혁명의 진행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헤게모니 균열의 틈새에서 등장했다. 양자를 묶어준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이었지만, 그 개념은 이 두 층위가 일치하지 않고 분리되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더욱 모순적이었다(백승욱, 2017c; 2020). 이렇게 헤게모니 교체기의 국가간체계 질서의 혼돈기에 출현한 위기 대응에서 월러스틴이 강조한 ‘지구문화’는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그것이 항상 ‘보편성’의 요구를 확장함으로써 지구문화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제도적 외연을 확장해 왔기 때문이다.

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비교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중국과 한국(또는 싱가포르)을 비교하는 경우처럼 비교 대상의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크고 불균등하다는 점, 비교 대상의 단위가 역사 속에 변동하기 때문에 공간범위를 획정하기 어렵다는 점(두 개의 한국과 두 개의 중국, 제국 일본과 패전 이후 일본의 불일치), 비교 대상의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독립적 변수로 고려될 수 없고 지속적 상호작용 속에서 역사를 형성해 왔다는 점, 그리고 이 지역이 더 큰 세계의 구도 속에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는데, 포괄적 비교와 통합된 비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려는 시기에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여러 국가들이 근대적 ‘형성’(뿐 아니라 ‘재형성’) 과정을 겪었고 이는 동시에 더 큰 동아시아적 공간의 지정학적 역동성 속에서 작용한 것이고 이는 동시에 세계체제적 수준의 제약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비교의 축을 확장했다 좁히기를 반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조반니 아리기는 동아시아 연구의 난점을 해결하고 동아시아에서 시간의 중첩이라는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그의 ‘통합된 비교’보다 오히려 ‘포괄적 비교’에 가까운 전략을 구상해 하마시타 다케시와 마크 셸던과 함께 ‘세계 지역’과 ‘동아시아의 장기지속’이라는 관점을 가설적으로 제시한 적도 있지만(Arrighi et al., 2003),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경계가 다소 ‘물화’하면서 동아시아가 유럽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시기 이후에도 그 ‘외부’와 대비되는 ‘내부’의 고유한 속성의 지속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난점이 생긴다. 중국 부상의 이례성에 대한 아리기의 강조 또한 이런 한계를 되풀이하는 측면이 있다(아리기, 2009)

20세기 국가간체제 질서에서 미국 우위의 결정적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를 다루고자 할 때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형성기의 분석과 그 공고화 이후 구조의 분석을 구분하는 분석 방법이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월러스틴 자신이 이 두 대상에 대한 논의 방식을 구분할 뿐 아니라(Wallerstein, 1992; 월러스틴, 1999b), 역사사회학의 역사적 정리에서도 이 둘은 서로 다른 논점을 구성함이 많이 지적되었다(Adams et al., 2005: 15-18). 세계경제의 작동에 대해서는 기축적 분업을 중심으로 훨씬 구조적 분석을 지향하는 월러스틴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출현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정세적 해석’이라 부른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다(Wallerstein,

1992).

그렇다면 같은 접근을 특정 시기 국가간체계 형성과 구조의 역사를 구분해 설명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영국 헤게모니 하의 국가간체계의 질서가 20세기 미국 헤게모니하의 국가간체계의 질서로 전화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새로운 구조의 탄생’을 보여 주는 사건들의 연쇄와 접합에 따른 좀 더 ‘정세적’ 설명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구조적 제약 속에서 진행되는 내적 전환의 서술방식을 따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냉전 형성의 역사 궤적은 한편에서는 미리 예견된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돌발 상황으로 이어진 사건들로 얽힌 복잡한 ‘사후적’ 효과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럼에도 이는 전후 새로운 미국 헤게모니 국가간체계의 질서 수립이라는 점에서 국가간체계의 구조적 제약의 지속적 작동과 변형되긴 했으나 최초 설계의 기본 구도가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건들의 연쇄가 달라짐에 따라 미묘하게 바뀐 역사의 궤적은 미국 헤게모니의 국가간체계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지는 않았겠지만 그 이후 70년간 동아시아의 질서는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우리는 지금도 그 후과 속에서 살고 있다.⁵

2. 야마무로 신이치와 ‘동류화’라는 질문

동아시아 ‘후발 국가’의 국가형성 과정은 유럽의 후발국가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 놓인다. 한편에서는 유럽의 국가형성을 모방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제국주의’ 유럽국가들의 모델로부터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곤란한 선택으로부터 동아시아 국가들의 독특한 선택이 출현한다. 일본의 사상사 연구자 야마무로 신이치는 동아시아 현대사의 특이성을 탐색하기 위해 ‘평준화, 동류화, 고유화’라는 세 범주를 제시하였다(야마무로 신이치, 2003; 야마무로 신이치, 2018). 평준화는 유럽 세계가 세운 보편의 기준에 일방적으로 편입되거나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유화는 그와 반대로 유럽적 ‘근대’를 인식하면서도 자

⁵ 윌러스틴은 19세기 지구문화로서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그 형성과정과 함께 그 포괄적 영향을 동시에 강조해 보여 주기도 했다(윌러스틴, 2017).

기 고유한 경로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 상황에서는 평준화와 고유화라는 상반되는 지향성 사이에 ‘동류화’라는 제3항의 범주가 등장해 이 양자를 동시에 진행시키면서도 분기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동류화의 지향은 동일한 지역세계 내부에서 일어난 변혁을 모범으로 내걸고 그것에 동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지향 ... 동류화의 선택에는 자기 정치 사회의 역사성과 그 쟁점의 정치적 배치상황,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이라는 요인들이 크게 작용한다(야마무로 신이치, 2003: 95).

동류화를 위해서는 일단 그 지역 내에서 ‘평준화와 고유화’를 동시에 결합해 진행한 선행 경험의 모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동류화가 규정되면, ‘고유화’의 의미도 단지 평준화와 대립이 아니라 동류화를 통해 구체화하는 함의가 분명해진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복제’와 달리 지역 내 유사성과 차이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궤적이 복잡해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편에서 따라잡거나 강요된 동화가 작동하지만 그 속에서 독특한 거리두기나 독특성이 작동하는 배경은 이 동류화를 매개로 한 고유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⁶

고유화는 평준화나 동류화에 대한 역방향의 역학으로서 차이화를 지향한다. 그러나 그것은 평준화나 동류화와는 동떨어져서 아무런 관련도 없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야마무로 신이치, 2003: 99).

이런 독특한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동아시아 내에서 유럽에 대응하여 선행적으로 등장한 일본적 궤적의 독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근대’란 유럽으로부터 확장한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중심

⁶ 나는 다른 곳에서 이를 “근대적 단절의 담론 구성체의 형성”으로 지칭하고 분석하였다(백승욱, 2019a).

부에 직접적으로 종속되는 과정이었고 유럽의 식민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윌러스턴 1999c; 1999d). 그에 비해 동아시아의 ‘자본주의화’ 궤적은 단일 세계체계의 편입이라는 세계체계의 구도에서 보더라도 특이한데, 유럽 중심부에 의한 직접적 식민화 과정이 아니라, 유럽 중심부의 압력하에 세계체계에 편입되기 시작하지만(‘문화 개방’) 직접적 식민화가 아니라 마치 또 다른 ‘발원지’가 등장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노우에 가쓰오, 2013; 마키하라 노리오, 2012; 하라다 게이이치, 2013). 일본을 개항한 미국이 19세기 후반부 영토제국주의적 19세기 모델과 탈식민주의적 20세기 특징을 혼합해 지니고 있었는데, 태평양 넘어 일본에 대해서는 후자의 측면이 더 두드러졌으며 이것이 일본의 19세기 후반의 길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이 중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국가형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에 ‘유럽’의 영토적 외연의 직접적 확장세력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미약했고 상호 견제의 ‘세력균형’ 외교만 이 지역에 작동하고 있었던 점도 중요했다(가토 요코, 2012; 야마무로 신이치, 2017; 川島眞·服部龍二, 2007).

비식민화하는 방식으로 유럽화를 지향한 일본의 길의 특성 때문에 ‘서구 제국주의’의 압력하에 ‘평준화’를 강요받던 이 지역 후발 주자들이 평준화를 피하며 고유화를 모색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일본을 동류화의 통로로 삼는 시도가 중요해질 수 있었다. 유럽에 대한 ‘평준화’를 추진하면서도 ‘반-제국주의적 제국주의’라는 기이한 형태를 보였던 일본의 궤적 때문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초기에 반-식민지 지향의 모델이 되었다(So and Chiu, 1995: 92). 조선과 중국의 동류화는 처음 일본을 모델로 삼지만 그 이후 상이한 궤적을 걷는다.

중국이 국민국가 형성으로 나아간 것은 아편전쟁이나 이래 우호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계기로 작용했다. … 결국 중국이나 조선에 국민국가 형성을 촉진하여 근대 동아시아세계의 질서를 출현시킨 것은 바로 ‘일본의 충격’이었던 것이다. … 이것은 국민국가 형성이, 종종 오해되듯이 구미와 일대일로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세계 내에서 경합하는 가운데 창출되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 동류화와 관련해서 내가 가장 중시하려는 점은, 동류화라는 영위를 통해서 실은 동아시아 지역세계의 통합과 그 경계영역이 차츰 의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 일본으로 동류화하는 것과 중국과의 종속체제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시작된 조선의 국가체제 개혁이 일본법령의 섭취를 동반하면서도 조선 국가

체제의 고유화를 모색하며 진행된 것에 반해서,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의 변법자강운동과 그 뒤를 이은 신정개혁에서는 일본법제로 동류화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양상을 드러냈다(야마무로 신이치, 2003: 90-115).

여기서 ‘동류화’라는 관념은 단지 한 지역 내에 공존해 있다(야마무로 신이치는 이를 ‘同洲’라는 질문이라고 본다)는 지리적 위치에서 자동적으로 귀결되는 결론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설명한 윌러스틴의 3층위를 빌려 설명하자면 국가간체계의 구성에 작동하는 지구문화의 포괄적 영향과 마찬가지로(윌러스틴, 2017) 확장된 시공간 속에서 차이를 동반한 보편화의 외연이 확장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근대, 즉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근대적 국가간체계 질서라는 ‘총체화’하고 ‘전지구화’하는 보편성의 압력에 대응해 각 사회 고유의 ‘단절의 근대적 담론구성체의 사상사적 계보’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근대의 제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독자적 길들이 분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백승욱, 2019a: 56-60).

3. 중국의 동류화의 전환: 일본에서 소련으로

1) 쑨원의 혁명 구상

조선이 조기에 식민지로 전락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동류화의 의미가 두드러지게 지속되면서 변형을 겪은 곳은 중국혁명 과정이다. 중국의 동류화는 앞서 야마무로 신이치가 지적했듯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한 이후 두드러지게 일본을 근대화의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에 군사교육 목적과 지식 습득 목적으로 신정 시기 정부 주도로 ‘유력’이라 일컫는 집중적 유학생 파견이 이루어졌고(상병, 2013), 청조 말기 일본 유학생 수는 1906년 무렵에는 이미 8천여 명에 달했다(하라다 게이이치, 2013: 8). 중국 변법파들의 일본 메이지 유신에 대한 참조와 ‘동류화’의 노력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왕효추, 2002).

신해혁명 과정 또한 이런 동류화를 잘 보여 주는데, 신해혁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쑨원이 사상적 지도자이긴 했지만 정치적 조직화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유학생과 망명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동맹회였고, 여기에는 일본 유학생과 더불어 국학대사라 송상받은 장타이엔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김형중, 1989;

민두기, 1989; 1994; 이승휘, 2018). 쑨원이 여기에 좀 더 ‘서구적’ 색채를 보탬을 수 있지만 ‘번벌주의’를 기반으로 한 ‘입헌적 길’로 해석된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은 신해혁명 이후 줄곧 쑨원의 ‘동류화’의 중요한 모델로 작용했다. 쑨원이 현룡사 등 대륙낭인을 통해 일본의 정계와 연결선을 찾고자 한 것이나 21개조 요구 이후 반일 정서가 고양되던 시절에도 쑨원이 지속적으로 만주 이권을 대가로 일본의 차관을 요구한 것 등에서도 이런 지향은 계속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승휘, 2018; 후카마치 히데오, 2018).

그런데 중국혁명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초기에 그리고 조선의 합방 이후에도 일본이 중국의 동류화의 모델로서 작용했다는 점뿐 아니라 1919년 5·4운동 이후에 점차 쑨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의 동류화의 또 다른 모델로 러시아(소련)가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15년 일본의 ‘21개조 요구’, 일본의 1차대전 참전(대독전), 파리강화회의와 산둥반도 등의 이권 확보 등을 거치며 대중적 반일 정서가 고양되었고 일본이 더 이상 동류화의 모델이 되기는 어려워졌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에서 소련으로 동류화 대상의 전환 고리를 형성한 것은 앞선 동류화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일본 유학생’ 출신의 좌익 세력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이후 이른바 ‘국민당 좌파’를 형성하였고, 이로부터 쑨원의 ‘국민당 개조’의 사상과 시도가 전개되고 공산당 세력과 결합하면서 이제 ‘동류화’의 모델이 소련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간다.

1924년 초 쑨원의 국민당 개조는 이른바 ‘국공합작’의 바탕이 된 사건인데, 이는 쑨원-요페의 비밀 회담(1922년 8월~1923년 1월), 장제스를 대표로 한 쑨원 특별 사절단의 모스크바와 코민테른 방문(1923년 11월), 코민테른이 파견한 자문역인 보로딘이 주도한 국민당의 개조와 국민당 1차 전국대표대회 개최와 강령 채택, 이어서 제1차 국공합작의 과정(1924년)으로 전개된다.⁷ 통상적 오해와 달리

⁷ 1919~1921년 시기 소련은 중국의 친일세력이 득세해 일본과 연계해 반소 전선을 전개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였는데, 이로부터 한 편에서 상하이에 코민테른 원동국을 설치해 보이팅스키 주도로 중국 공산당 창당을 적극 이끌었고 다른 한편 국민당이 당내 합작을 통해 반군벌 친소 노선에 설 수 있도록 결인하고자 했다. 이후 1차 국공합작에 대한 소련의 중국 지원은 상당한 규모여서 군사고문 파견과 황포군관학교 설립을 위한 270만 위안 제공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광저우로 무기 수송 등의 지원으로 국민당 군대를 집중 육성시켰다(楊奎松, 2012: 32-77).

이 작업은 국민당의 재창당 사업이나 다름없었는데, 쑨원을 필두로 모든 당원들이 당 가입원서를 다시 제출해 심사를 통한 선별 입당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당을 ‘불세비키화’하려는 시도가 출현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나현수, 1989; 민두기, 1994; 이승휘, 2018).⁸

쑨원의 국민당 개조 구상은 이를 통해 지역유지나 군벌과 연계된 ‘국민당 좌파 세력’, 당의 불세비키화를 지지하는 일본 유학과 출신의 ‘국민당 좌파 세력’,⁹ 그리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공산당 세력 셋을 결합하는 새로운 국민정당 창당에 가까운 것이었다. 정치강령들의 기묘한 결합인 쑨원의 ‘삼민주의’는 그 산물이다. 그리고 이 이질적인 세 세력은 강령이나 조직에 의해 통합되기보다는 ‘삼민주의’ 사상을 체현한 쑨원이라는 카리스마적 인물에 의해 통합되는 구도였으며(민두기, 1989: 109-113), 정치의 미래는 군정, 훈정, 헌정이라는 3단계 수순을 밟도록 되어 있었다. 쑨원의 삼민주의는 구성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민족’(이는 이후 ‘인민’ 개념으로 발전될 수 있음), 민생에 의해 재정의 되는 ‘민권’, 그리고 공산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담으면서 이 이후를 전망하는 ‘민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자연스럽게 ‘신삼민주의’를 통해 쑨원을 계승할 수 있기도 했다(쑨원, 2000; 모택동, 2002; 백승욱, 2019a: 63-66).

삼민주의에 기반한 이런 쑨원의 정치구상이 단지 단기적 목표를 지닌 전술적이거나 실용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은 1923년 말 소련에 파견한 쑨원 대표단 대표인 장제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장제스는 소련 방문단을 이끌고 모스크바에 3개월을 체류하면서 트로츠키·지노비에프·카메네프 등을 접견한 이후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서 1923년 11월 25일 이렇게 발언했다.

⁸ 국민혁명 과정에서 국민당은 동맹회로부터 출발해 송자오런 등 구국민당 세력이 주도한 산만한 조직형태의 정당이었고, 쑨원 자신이 주도한 것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철의 규율’을 확립한 중화혁명당이였다(이승휘, 218: 53-63). 소련과 합작에 나선 쑨원은 국민당이 “조직이 결집되고 정신이 산만해 당의 군대라 할 수 없으며 이후 당으로 국가를 통치하고자 하는데(以黨治國) 마땅히 러시아인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소련이 성공한 이유는 “당을 국가 위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楊奎松, 2012: 68-70). 이런 맥락에서 중국에서 독재적인 ‘당-국 체제’의 형성에 대한 보로딘의 책임론이 제기된다(楊奎松, 2012: 157-158).

⁹ 당시 ‘국민당 좌파’는 료중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주즈신, 허잉샹, 왕자오밍(왕정웨이), 장제스, 다이지타오, 더 넓게는 후한민까지를 포괄하고 있었다.

삼민주의는 ... 중국 혁명의 정치구호가 되어야 합니다. ... 세 번째 주의, 즉 민생주의는 공산주의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 우리가 무산계급 혁명을 시작할 수 없는 원인으로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 두 번째 원인은 ... 만일 오늘 우리가 공산주의 구호를 사용하면 소토지 소유자와 소자산 계급에게 이 구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조성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의 ... 강령은 ... 통일전선에 의거해 혁명의 거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우리 당의 세계혁명 구상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계혁명의 주요 기지는 소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반드시 자본주의 열강들의 간섭 행동에 반대해야 하며, 러시아 동지들로 하여금 독일 혁명을 승리로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 중국 혁명의 첫 번째 단계, 즉 중국 민족주의 혁명은 3, 5년 내에 성공할 수 있고, 일단 성공하면 우리는 두 번째 단계 즉 공산주의 구호하에서 선전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이승휘, 2018: 552-553에서 재인용).¹⁰

쑨원 사후 국민당 좌파의 핵심 인물인 라오중카이가 암살당하면서 이 3자 동맹에 기반한 국민당 개조의 틀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이 구도가 곧바로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흔히 이야기되는 것과 달리 쑨원 사후 중산함 사건(1926년 3월)이나 더욱 심각한 균열로서 상하이 쿠데타(1927년 4월)도 이 구도를 완전히 무화시켰던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동류화의 대상으로서 소련이 이 동류화 과정에서 단지 외부자만은 아닌 내부적 위상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무기와 경제 자원 등의 실질적 지원 외에 다양한 고문단을 파견했고, 1930년대와 1940년대 중국 지식 엘리트의 절반은 정치적으로는 영미를 배우고자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소련을 배우는 절충파적 특징을 띠고 있었다(楊奎松, 2012: xx).

그런데 이처럼 중국혁명 과정에서 ‘동류화’의 대상이 일본에서 소련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단지 동류화의 대상이 전환되었다는 함의만 지닌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 동류화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로부터 그보다 넓은 지역으로 지정학적 동역학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로 나아가기 시작했

¹⁰ 사실 장제스의 모스크바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광둥의 혁명 근거지 대신 소련과 접경지역의 중국 서북지역에 소련의 물적·군사적 지원을 받아 군사기지를 세워 베이징으로 진공한다는 ‘서북 군사계획’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이승휘, 2018: 530-539; 楊奎松, 2013).

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앞서 살펴본 ‘포괄적 비교’라는 논점을 ‘동류화’의 관점과 연결해 중국혁명을 이해해 볼 수 있는 함의를 우리는 양웨이쑹(楊奎松)의 ‘중간지대의 혁명’이라는 해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내적 요인이 반드시 적절한 외적 요인과 결합해야 비로소 작동하였고, 적절한 외적 요인과 분리되면 훌륭하고 유리한 내적 요인도 이상적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었다. ... 외부 국제 대환경과 소련의 작용과 떨어져서 단순히 국민당 자신과 마오쩌둥의 명명한 결단력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많은 상황에서 해석이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만일 중국 인근에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 있었다면, 만일 1937년 일본이 중국 전면 침공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만일 코민테른이 마오쩌둥을 지도자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만일 항일전쟁 중 모스크바가 중공을 신뢰하고 국민당과 반목하는 동시에 두 적에 대해 작전을 전개했다면, 만일 전후 소련이 동북에 출병하지 않았거나 소련과 미국 간에 적대적 냉전이 전개되지 않고 것처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 소련이 유럽에서처럼 프랑스 공산당이나 이탈리아 공산당과 그리스 공산당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중공이 정권을 장악하는 투쟁을 지지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중공이 동북에 진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 마오쩌둥이 아무리 기민하게 지혜를 발휘했다 하더라도 절대 1949년 성공을 실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楊奎松, 2010: 4).

앞서 우리가 검토한 구도에 비추어 보자면, 포괄적 비교의 전략을 통해 제기되는 공간적 이해의 필요성과 더불어 시간대의 중첩이나 사건들의 중첩과 시퀀스를 탐구하는 역사 분석의 구도가 중국혁명의 진행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우리는 이를 “분석대상의 규정 속으로 비교가 통합되는” 통합된 비교의 전략으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혁명의 질문이 단지 중국의 질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중반 동아시아에서 국가간체계의 구도가 변화하면서 정착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의 문제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혁명이 ‘중간지대’에 있었다는 것은 혁명 시기에 중국의 변동이 더 큰 공간의 일부의 규정 속에서 진행되었으면서 또한 반대로 중국혁명은 그 더 큰 공간의 변동을 고려한 대응을 통해 역으로 그 공간을 변형시키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그만큼 여기서 ‘동류화’의 과정은 미묘하게 국제정세 속에서 지

속적으로 변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개로 쪼개진 중국이(그림에도 바깥에서는 하나로 고려됨)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인 형성기의 국제질서 속에서 그 자신 그 질서의 일부분인 새로운 질서체계를 규명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이 미묘하고 복잡한 국제질서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혁명의 과정을 겪어가게 된 것은 무엇보다 혁명 이후 소련의 지정학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의 지정학적 지위 때문에 소련이 ‘서부전선’에서는 독일의 방어지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코민테른 지원하는 독일 혁명의 꿈을 품었다면 ‘동부전선’에서는 장제스 정권을 안정화하여 일본의 방어지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외부의 세계로 ‘동류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그 고려 대상이 일본에서 소련으로 전환되었다면, 외부가 중국에 강제하는 흐름은 19세기적 질서에서 20세기적 질서로 전환이었다. 이런 교차는 몇 차례 중요한 역사적 계기를 거치게 되는데 거기서 조합되는 선택지들의 결과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 코민테른과 중국 혁명

중국이 동류화의 대상을 일본에서 소련으로 전환하고(그러면서 내적 균열과 대립은 내전 수준으로 확장된다), 소련이 19세기적 질서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도전들 속에서 서쪽 경계와 동쪽 경계를 관리하는 영토주의적 고려의 일부로 중국을 평가하는 상황이 교차하면서(그리고 미국 변수의 중요성 또한 커지면서), 중국 혁명에는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운 궤적이 형성되고 또 이 중국혁명이 국가간체계 질서의 변동의 방향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해 간다. ‘중간지대의 혁명’이라고 부른 양웨이쑹의 분석을 따라 중요한 고리들을 추적해 보자.

- ① 쑨원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련은 지정학적 고려에서 국민당을 지지했다. 중산함 사건(1926년), 우한 정부 분열(1927년) 등을 거치며 장제스를 왕징웨이(왕자오밍) 등 다른 인물로 대체하려는 시도도 해 보았으나 실패하자 다시 장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였다. 장제스 또한 소련의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를 포기한 적은 없었다.
- ② 중국혁명에 대한 소련의 목소리는 단일하지도 않았고 일관되지도 않았다.

이는 중국혁명과정이 소련 사회주의 건설과정과 상당부분 겹치고 이 때문에 소련 내부적 분열이 중국혁명에 그대로 영향을 끼친 데서 기인하였다. 소련 공산당과 정부의 영향하에 있는 (요페)-보로딘-카라한(주중 소련대사)-크렘린으로 이어진 보고라인과 코민테른 영향하에 있는 보이틴스키(이후 로이도)-코민테른-모스크바 보고 라인 사이에는 상호 갈등이 있었고 1920년대 중반 이후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楊奎松, 2012: 161, 169).¹¹

- ③ 1925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소련 공산당 내의 분열은 반복적인 코민테른 내의 숙청을 거쳐서 중국공산당 노선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코민테른을 둘러싼 스탈린과 지노비에프의 대립은 1926~1927년경 중국에서 보로딘-로이의 대립과 그 당내 반영으로, 스탈린과 트로츠키의 대립은 천두슈 총서기의 당적 박탈과 중국 내 좌익반대파 구성으로, 스탈린과 부하린의 대립과 코민테른 6차대회의 ‘극좌노선’ 수립은 중국 내에서 코민테른 원동국을 통한 파벨 미프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이와 대립하여 부하린의 ‘우경노선’에 대한 자기 보호를 내세우면서 경화된 리리싼 노선을 둘러싼 극좌적 편향의 형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楊奎松, 2012: 169-181, 240-286; 맥더모트·애그뉴, 2009: 273-283; 판초프·레빈, 2017: 337-341).
- ④ 장시(江西) 소비에트 수립은 소련이 요구한 ‘소비에트 건설’ 중심 노선 요구의 결과였고, 이는 특히 소련유학파를 당 중심에 배치해 미프의 코민테른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직할 체제를 수립한 것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시기 소련의 위기감과 그 반면에 등장한 세계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론은 그대로 중국 혁명 노선에 영향을 끼쳤다. 농촌 중심 조직 활동은 동의를 얻지 못했고(심지어 부농 타격론도 등장) 중심도시에 소비에트 건설과 무장봉기가 포기될 수 없었다(楊奎松, 2012: 맥더모트·애그뉴, 2009: 273-283; 중국공산당 중앙당사연구실, 2016: 519-543).
- ⑤ 대장정 과정과 그 이후에도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 지도노선은 확립되기 어려웠다. 대장정 기간 중의 준의 회의에서의 군사노선 전환 문

¹¹ 1930년대 초까지도 소련의 외교노선과 코민테른 노선이 꼭 일치했던 것만은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빈 공간’은 여러 곳에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맥더모트·애그뉴, 2009: 148-155).

제에 대한 소련의 승인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장궈타오(張國燾)의 홍4방면군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주도권 문제, 그에 뒤이어 1938년 왕밍복귀 이후의 주도권 문제 등이 반복되었다(楊奎松, 2012: 364-420; 金冲及, 1996: 391-397; 중국공산당중앙당사연구실, 2016: 677-701). 코민테른의 지지가 없었다면 마오의 주도권이 확립되기는 어려웠다(楊奎松, 2005: 53-278).

- ⑥ 만주사변으로 소련의 국경이 위협받자¹² 소련은 화북과 지역에서 중공 세력을 키워 일본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중공이 무력하다고 보고 다음으로 동북 지역의 여러 항일 세력을 중공 통제하의 통일 전선으로 형성하여 일본을 견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았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다시 장제스 세력의 지지로 나아가 상하이 사변 이유로 단교한 지 5년 만인 1932년 12월 난징정부와 재수교하였다(楊奎松, 2012: 324).
- ⑦ 1935년 코민테른 7차 대회 방향 전환 이후 소련은 제2차 국공합작을 요구하고 장제스의 국민당 우위하의 공산당을 국민당군에 종속시키는 편제 재편을 요구하였다. 일본의 위협이 커지면서 소련의 우선 목표는 일본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홍군의 주력을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방침을 취했다. 일본을 중국과 전쟁 속에 잡아 두어 소련으로 진공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중요했다. 반면 마오는 전면 전쟁을 거부하고 세력 보전과 선전에 중점을 두었다(楊奎松, 2012: 412-414). 이후 중국 공산당은 열강이 현 상황에서 정전을 추진해 중일전쟁 이전 현상유지로 되돌아가려 하며 장제스도 이에 협조적 태도 보인다고 판단하고, 이를 ‘동방의 뮌헨협정’이라고 비난하였다(楊奎松, 2012: 433-444). 미국이나 소련 모두 일본을 중국 영토에 붙잡아 둠으로써 큰 수확을 거두었다는 데서 중일전쟁의 의미를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었다. 소련침공은 억제되었고 태평양 지역의 전선의 확대도 억제되었다.¹³

¹² 만주사변 이후 일본 이시하라 간지 등 이를 주도한 일본 육군 청년장교 세력 사이에서는 소련 주적론과 전쟁불가피론이 급속도로 부상했고 이는 중일전쟁을 거쳐 태평양전쟁 시기까지도 지속되었다(가토 요코, 2012).

¹³ 일본의 잘 훈련된 주력군인 관동군은 소련침공을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군이 주도한 태평

- ⑧ 소련은 처음에는 ‘제국주의 전쟁’에서 발 빼고 이로부터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이득을 얻고자 독일 일본과 각각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유럽에 대한 집단안보 제안을 철회하고 제국주의 전쟁에서 벗어나 시간은 벌고자 하였다(楊奎松, 2012: 436-445). 초반에는 오히려 이런 국제 정세를 활용해 핀란드, 우크라이나, 벨로루스, 발트3국으로 제국 시대의 영토를 확장하기도 하였다(楊奎松, 2012: 460).
- ⑨ 1941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1941년은 미국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소련이 중요한 주역으로 등장한 시점인 동시에 중국 공산당 또한 이 국제질서의 단지 작은 종속적 귀속물이 아니라 중요한 독립적 변수로 전환되기 시작한 해이다. 중국 내적으로 보면 1941년 독소전쟁과 뒤이은 태평양전쟁 발발 정세 덕에 마오쩌둥은 당내 정풍을 주도할 수 있게 되고 최고 핵심지위를 얻게 되었다(1943년 3월)(楊奎松, 2012: 479-496). 1943년의 코민테른의 해체는 역사적으로 중국 혁명의 길을 더 넓게 열어 준 셈이었다(楊奎松, 2005: 147-151).
- ⑩ 독소전쟁 이후 소련이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기 어려워지자 중공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미국의 태도 또한 바뀌어 미국은 장제스를 초공전에서 항일로 견인하고자 하고 공산당과의 연합정부 구상을 제시하였다. 1943년 12월 루즈벨트는 카이로 회담에서 장제스에게 공식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였다. 마오는 유고슬라비아가 영국의 지원을 받아 반파시트 전쟁에 참여한 것과 유사한 경로를 중국 공산당도 걸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楊奎松, 2012: 502-505; 2005: 180-184).

야마무로 신이치의 ‘동류화’ 개념과 양웨이쑹의 ‘중간지대의 혁명’ 개념에서 출발해 우리는 중국혁명 과정의 전환을 검토해 봄으로써 20세기 초중반 동아시아에 작동하는 시공간의 중요한 변환을 이해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동류화의 출발점은 서구를 직접 모방하지 않는 대신 일본을 우회로로서 동류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그 동류화의 대상이 일본

양전쟁에 투입을 끝까지 반대했다(반하트, 2016).

에서 소련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단지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시대가 전환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함의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이 이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동류화의 중요한 모델로 더 이상 등장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인데, 이는 동아시아가 ‘지역’으로서 작동하는 동학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과 맞물려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III. 20세기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구상과 소련, 중국의 맞물림

1. 루즈벨트의 단일 세계주의의 등장: 반식민주의와 소련

1930년대 미국의 국내 질서를 ‘뉴딜’로 재편한 이후 1941년부터 ‘단일 세계주의’에 기반한 루즈벨트의 글로벌 뉴딜이 시작된다(아리키, 2014; 서먼, 1987). 이 단일 세계주의는 매우 야심찬 기획이었는데, 세계를 19세기의 식민지질서로부터 해방해 완전개방된 세계시장을 창설하고 이를 통해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에서는 구 질서에 대한 도전세력인 독일과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종식시켜야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구질서의 중심을 허물고 탈식민화의 구상하에서 이 전쟁 종식 이후 전후 질서를 모색해야 했다. 이를 위한 구상이 앞서 등장한 3강 또는 4강의 구도였는데, 식민화 세력의 대표였던 영국을 겨냥된 탈식민적 방향을 추동하기 위해 명백한 ‘비식민화’ 노선을 표명한 소련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과제가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이 구상의 추동은 루즈벨트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 ‘뉴딜주의자들’이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인다.¹⁴ 이 ‘공상가 동맹’에는 단일세계주의 신봉자인 월리스(Henry Wallis) 부통령(루즈벨트 2기), 케인즈주의적인 수정 자본주의 구상

¹⁴ 모겐소-화이트로 대표되는 루즈벨트 정부 내 ‘국제주의자들’은 독일을 포함한 전세계의 무장해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전후 소련은 재건을 위해 미국 자본을 유치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제공된 차관과 원조는 소련의 책임감을 높이고 문호개방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고 보면서 차관 제공을 위해서는 현안에 미국과 ‘협력하려는 의지’를 소련이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서먼, 1987: 124-126).

의 설계자인 커리(Lauchlin Currie, IMF를 설계), 그리고 브레튼우즈 체제 수립의 공동인 화이트(Harry Dexter White) 등이 포함되었다.¹⁵ 그리고 당연히 이 전후 구상을 실체화하기 위한 정책적 실무기구가 중요했는데 정부 내에서는 국무부·육군·해군으로 구성된 삼부조정위원회(State-War Coordinating Committee: SWNCC)가 구성되어 특히 극동의 점령 처리문제를 다루었고(곽기병, 2017), 주축국 자체에 대한 심화한 연구에 기반해 전후 이 지역을 ‘미국화’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민간 공동 프로젝트가 중요했는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 독일 출신 프리드리히가 하버드 정치학과를 중심으로 해 이 구상을 이끌었고 여기에 인류학, 행동주의 심리학, 사회학(파슨스)이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맡았다(그린버그, 2018; Gerhardt, 1999).

탈식민화 문제와 관련해 루즈벨트는 처칠보다 스탈린이 자신의 계획을 더 잘 이해했으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을 정도로 스탈린의 소련에 대한 기대가 컸다.¹⁶ 루즈벨트는 식민시대의 ‘세력권’ 구상을 완전 제거하겠다고 비유럽권 지도자들에게 언명하기도 했고, 영국을 꺾기 위해 자신과 친밀한 관계인 네덜란드 빌헬미나 여왕을 먼저 공략해 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탈식민화의 구상으로부터 전후 식민지 체제의 연착륙을 위한 구상으로 ‘신탁통치’ 구상이 등장했다. 루즈벨트는 인도차이나 외에, 삼, 말레이 국가들을 국제 신탁통치에 둘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러시아도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러시아 외상 몰로토프에게 1942년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고, 몰로토프는 독일과 일본이 전쟁위협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원칙이라면 대통령 제안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

¹⁵ 루즈벨트는 윌리스를 기용한 이유에 대해 “그는 ‘철학자’다. 그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는 올바르게 생각한다. 그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도울 것이다.”라고 평가했다고 한다(Henrikson, 2008: 50). 윌리스는 1948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 대표로 트루먼과 맞선 이력이 있다(Culver and Hyde, 2001). 커리는 루즈벨트 행정부의 대표적 케인지안으로 뉴딜 구상에 중요한 기여를 했고 IMF를 설계한 인물로, 루즈벨트는 중요한 국면에 커리를 장제스와 공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리를 중국에 특사로 파견하였다. 그는 화이트와 함께 루즈벨트 행정부에서 윌리스 부통령의 친구이자 철학적 동맹자이기도 했다(Culver and Hyde, 2001: 492-493).

¹⁶ 루즈벨트가 이 언명을 아들인 엘리엇에게 했다는 이유로 냉전 시기 신뢰받지 못한 주장으로 치부되었으나 이후 당시 루즈벨트를 수행하며 일기를 세밀하게 남긴 숙리(Margaret Suckley)의 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Gardner, 2008: 127).

신을 표명한 바 있다(Gardner, 2008: 130).¹⁷

확신에 찬 루즈벨트는 먼저 카이로 회담에서 장제스를 4강에 포함시켜 이를 통해 인도차이나와 동아시아의 탈식민화의 강력한 지지대를 세우고자 하였다. 루즈벨트는 이어 테헤란 회담으로부터 알타 회담까지 스탈린과 전후 구도에 대한 생각을 맞춰 갔다. 출발점으로 프랑스에 대한 관점에서 일치를 본 후(1943. 11. 28) 인도차이나에서의 프랑스 식민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프랑스를 이 지역에서 배제하고 신탁통치를 시행한다는 기본방향을 잡았다(Gardner, 2008: 130).¹⁸

카이로 회담과 테헤란 회담 이후 중국 문제에 대한 루즈벨트와 스탈린 간의 합의는 지속되었고 이는 소련과 미국 각기 중국의 두 세력에 대한 태도에 반영되었다. 루즈벨트 정부는 1944년 이후 장제스가 점차 ‘재앙’으로 전환되어 갔음에도 장제스에 대한 지원 태도를 바꾸지는 않았다. 국민당에 대한 루즈벨트 정부의 지원 방침은 진주만 폭격 이전에 마련되었다. 루즈벨트는 핵심 측근인 커리를 1941년 2~3월 충칭에 파견하여 지원 방침을 정리하게 하였는데, 커리는 장제스뿐 아니라 저우언라이 등도 만난 후 효과적 지원감시를 위해 미국 원조를 감사할 자문단 파견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국민당 항공부대 창설 시안까지 마련하기도 하였다(Schaller, 2008: 149). 진주만 공습 전에 국민당 항공부대 창설부터 일본 본토 폭격 계획까지 마련된(마셜 장군 반대에도) 바 있다. 장제스에 대한 소련의 태도 또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소련은 장제스를 대미 대일 심지어 대중공의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소련을 파트너로 삼고 장제스에 연합해 탈식민 구상을 추진하고자 한 루즈벨트의 판단은 쑨원으로부터 시작한 신해혁명과 국민당 개조의 역사를 보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쑨원 자신이 1923년 이후 소련과 적극적으로 연합하고자 했을 때 소련의 ‘적화’의 대상이 영국일 수 있고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홍콩이 목표일 수 있지만 중국은 아니라는 보았다는 점에서(楊奎松, 2012: 76) 소련을

¹⁷ 물론 루즈벨트의 고려에는 미국 병사의 인명 손실을 40만 명 아래로 최소화하면서 독일과 일본과의 전쟁을 실질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소련의 대대적 개입과 그에 걸맞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었다(Hunt, 2007: 121).

¹⁸ 종전 후 현실에서 신탁통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정치적 동요를 겪고 그 출현과 비용의 맥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겪는다. 이에 대해서는 강성현(2017)을 참고하라.

‘동류화’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국 문제는 제2차 국공합작에도 불구하고 항일보다는 ‘초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장제스의 정책과 심각한 ‘독재’의 문제 때문에 갈등의 진원지가 되었다. 중국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의 루즈벨트 참모들과 중국 현지 파견자 사이에는 심각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으며 루즈벨트의 참모나 조연자 집단 내에서도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다. 버마 군구 사령관인 스틸웰이 대표적으로 장제스와 대립한 인물이었었는데, 스틸웰은 장제스 정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대표적 ‘정치 군인’이고 이 때문에 버마 회랑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투에서 국민당의 지원을 받지 못해 고전을 거듭하였다. 장제스 또한 스틸웰을 배제하려는 방책으로 센토에 기대 공군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갈등의 해소를 위해 커리는 1942년 7월 다시 중국을 방문해 상황을 조정하면서, 장제스에 대한 지지가 아시아의 전후 탈식민지화라는 자신의 입장과 잘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Schaller, 2008: 153).

중국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이후 마셜 등은 루즈벨트에게 방향전환을 권고하였지만, 루즈벨트는 “장제스는 우리가 얻으려면 수세기나 걸렸을 것을 성취한 4억 인민의 지도자”라는 판단을 수정하지 않았고(Schaller, 2008: 155), 장제스의 요구를 수용해 오히려 스틸웰의 지위를 철회하고 공화당 출신의 헐리를 대통령 특사로 중국에 파견한 데 이어 주중 대사직을 맡게 하였다.¹⁹ 그렇지만 1944년 이후에 중국 국내 정세가 복잡해지고 장제스는 원조를 늘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중국을 포함한 4강 구상은 중국을 제외한 3강 구상에 좀 더 밀려나게 되었다. 소련과 함께 알타로 가는 길이 좀 더 넓게 열리게 된 것이다.

2. 중국 변수의 부상과 동아시아 냉전 구도의 형성

알타 회담 이후 중국 문제는 점점 더 변동 속에 표류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중

¹⁹ 중국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데 헐리 대사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자 루즈벨트 사후 트루먼은 사임한 헐리 대사 후임으로 마셜을 특사로 중국에 파견하였다(Schaller, 2008: 165).

국 공산당의 역할은 이 표류의 폭을 확대하면서 균열의 틈새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소련의 대중국 방침은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변동하기 시작했고 이는 다시 중국의 내부 갈등 구조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크게 세 시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알타 협정을 유지하면서 동북을 완충지로 만들면서 중국을 프랑스식 길로 건인

루즈벨트 사망 후 트루먼의 미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은 커지기 시작했다. 전후 일본 처리에 대한 미국의 독점과 독주는 소련의 경계를 증가시켰고 만주를 완충지대로 만드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소련은 미국과의 대립의 고조를 회피하고 알타 회담의 기본틀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스탈린은 알타 회담의 취지에 따라 그리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국민당 정부 외교부장인 송즈원(宋子文)을 대표로 하고 장제스의 아들 장징궈 등을 포함한 14명 대표단을 6월 30일 모스크바로 초청해 한 달 반 동안 협상을 거쳐 일본 패전 선언 전날인 1945년 8월 14일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陶文钊 外, 2009: 394-102). 소련은 이를 통해 알타 협약에서 약속받았던 대로 일본에 뺏긴 만주·뤼순·쿠릴열도 등의 이권을 되찾고자 했고, 대신 만주 점령 후 만주를 국민당에게 넘기기로 협의하였다. 동맹조약에는 소련이 외몽고, 동북 지역 철로와 항구 통제, 동북에서 우세한 지위 차지하는 대신 국민당의 군령과 정령 통일을 소련이 보증하고 원조를 약속하였다. 또한 국민당이 중국 동북 지구 접수 권한을 지니고 동북 수복 지구에 행정기구와 중국 군대를 수립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였다(楊奎松, 2012: 525; 汪朝光, 2016)

종전 시점에 만주와 중국에 대한 소련의 태도는 극동 평화를 위해 미국을 중국에 끌어들이지 않고 중국에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장제스가 주도하는 평화 구도를 승인하고 마오쩌둥과 중공을 압박해 충칭 평화회담에 응하도록 하고 중국 공산당의 동북 진격을 중단시켰다(판초프·레빈, 2017: 494-497).

이 때문에 소련과 중국 사이에 ‘프랑스적 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소련은 중국의 두 세력에 대한 처리에서 미국도 용인할 수 있고 소련도 손해를 보지 않는 선택지로 전후 프랑스 문제 처리의 길, 즉 소련이 프랑스 공산당의 무력 집

권을 제약하는 대신 미국은 프랑스 공산당을 합법화하고 전후 연합정부에 참여하도록 용인하는 구도를 선호했다. 이는 탈식민 지역에 완충지대로서 신탁통치를 구상했던 것과 맞물린 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 국민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에 있던 중국 공산당과 마오쩌둥은 소련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즉 소련이 요구하는 프랑스적 길을 걸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당에게 양보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 이를 수용하였다(楊奎松, 2012: 526). 앞선 시기 ‘유고적 길’의 선택이 마오의 옵션이었다면 이 시기 ‘프랑스적 길’의 등장은 소련의 옵션이었다. 미국과 소련 모두 이 방안만이 국민당과 공산당 양자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여겨 미국과 소련 공히 전후에 공산당을 참여시키는 연립정부 수립을 장제스에게 강요하는 한편 공산당도 이를 수용하도록 요구하였다(楊奎松, 2012: 551-565).²⁰

그렇지만 트루먼 등장 이후 고조되는 긴장은 만주 문제 해결을 계속 어렵게 만들었다. 미국이 소련의 일본 점령(홋카이도의 무장 해제) 제안을 거부하고 일본의 독자 점령을 결정하는 동시에 동북(만주)에 문호개방을 요청하면서 대립이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장제스의 동북 무력 점령까지 지원하려 하였다. 스탈린은 진퇴양난에 처했는데, 중소 조약을 폐기하면 쿠릴 열도와 지시마 열도 점령의 알타 협정이 폐기될 위험이 있었고 그대로 두면 장제스와 미국이 연합해 동북 시베리아와 외몽고를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楊奎松, 2012: 535; 楊奎松 主編, 2006: 21-24).

소련은 국민당과 미국 사이의 거리를 떼어 두기 위해 장제스에 경제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처음에 소련은 일본이 남긴 개인소유는 국민당 배상으로 쓰지만 회사 소유물인 만주지역 공업 설비는 ‘전리품’인 전쟁배상금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에 대해 장제스가 항의하자 소련은 미국과 영국을 배제하는 공동 경영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장제스는 이 제안을 거부했고 이로서 소련이 합법적으로 동북을 통제할 기회는 사라졌다(楊奎松, 2012: 550;

²⁰ 일찍이 코민테른 7차 대회 이후 소련의 외교정책과 코민테른 노선 사이의 미묘한 긴장의 절충 방식으로, 공산당 세력을 지원하되 집권까지 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프랑스 인민전선과 스페인 인민전선 방식에 대한 소련의 지지와 개입의 전례가 있었다(맥더모트·애그뉴, 2009: 204-219).

楊奎松 主编, 2006: 25).

이에 소련은 알타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신 동북에 제3세력을 형성하는 방침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중국 공산당의 위상은 종전 이전 일본군에 대한 대응세력으로 간주되던 것과 비교해 매우 향상된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 소련은 알타 협정을 준수하면서도 공산당 홍군을 활용해 동북에 제3세력을 형성하는 방침을 펴기 시작했다(楊奎松, 2009: 33-39). 중소우호협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만주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국민당에 대비한 화북 지역의 우위를 활용해 종전 이전부터 부대를 대대적으로 만주지역으로 진출시키고 있었고, 동북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1945년 9월 14일 중공 동북국을 수립하고 평전을 서기에 임명하였다(戴茂林·李波, 2017: 24-28). 소련은 동북에 공개적으로 진출한 팔로군 부대에 대해서는 철수를 요청했지만, 소련 철수 후 누가 동북 점령하든지 관여 안 하고 농촌에서의 활동과 선전 활동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할 것이라는 비공식적 입장을 전달했다. 또 산하이관에서 진저우 선에 팔로군 배치에도 동의했다(楊奎松, 2012: 538-539).

미국 또한 알타 협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3강’ 또는 ‘4강’의 구도를 만주 문제와 관련해 수립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는데,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헐리대사의 사직을 받아들이고 대신 마셜 장군을 특사로 중국에 파견해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협상을 중재하게 하였고, 그 결과가 1946년 1월 10일 양자 사이에 체결된 정전 협정이었다. 여기에는 소련의 압력도 강하게 작용하였다. 마셜의 구상은 ‘프랑스 식 연합정부’ 구상이었는데, 마셜은 장제스를 압박하기 위해 장제스 독재권을 제약하고 공산당을 각 조직의 30% 정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중화민국 임시 정부 조직법〉 초안을 직접 작성하기까지 했다(楊奎松, 2012: 556-559).

2) 동과 서가 맞물리면서 분기가 발생하기 시작

트루먼이 루즈벨트를 대체한 이후 여러 가지 새로운 요인들이 개입되는데, 그중 두드러진 것은 원폭개발의 성공, 그리고 그와 맞물려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협력 관계에서 경합 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 그리고 동과 서에서 전후 처리 과정이 알타 체제의 구상과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1945년 말까지 미국과 소련 어느 쪽도 알타 체제의 합의를 어김으로써 생기는 부담을 지려 하지 않았고 이 범위 내에서 힘겨루기가 진행되었다.

긴장은 루즈벨트 사후 진행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의 소련에 대한 트루먼의 냉대로 시작해 소련행 물자 지원(Land-Lease) 선적 중단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트루먼이 흠킨스를 특사로 모스크바로 파견해 관계를 회복한 이후 과정은 소련에 불리하지 않게 진행되었다. 6월에 미 국무부 장관 스테티뉴스(Stettinius)는 소련이 구 이탈리아 식민지 신탁통치에 참여하겠다는 요청을 원칙적으로 수용했다. 7월의 포츠담 회담에서 소련의 루르 공동관리, 지중해와 터키해협에 대한 영향력 확장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독일 점령체제, 폴란드 국경, 독일 위성 국가들과의 평화협정 등의 승인을 얻고 몰로토프가 디미트로프에게 말했듯이 “발칸을 소련의 세력권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성과를 얻어냈다(Pechatnov, 2010: 96). 그러나 독일, 발칸, 극동 문제에서 점차 미국의 이해관계와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의 압력이 커지자 스탈린은 양보보다는 1945년 런던 외상회담을 방해하는 “끈기와 확고부동함 정책”을 추진했고, 이렇게 지연된 외상회담은 1945년 말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는데(모스크바 3상회의) 여기서 소련은 알타의 틀을 지속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Pechatnov, 2010: 100; 오코노기 마사오, 2019: 544-555).

중요한 전환점은 1946년이었는데, 출발점은 흑해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거점 확보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란과 터키 문제였다. 일찍이 테헤란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전후 이란에 대한 신탁통치를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Gardner, 2010: 127), 1946년 소련이 이를 이유로 이란에서 철수를 거부한 반면 트루먼이 소련의 이란 철수를 요구하면서 긴장이 커졌고 같은 긴장이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아가는 터키해협에 대한 소련의 거점확보에서도 되풀이되었다. 결국 소련의 미숙한 대응은 미국-영국과 충돌을 회피하고 알타의 이권을 확보하려던 의도가 그 반대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이란과 터키를 서방의 편으로 돌려세웠다(楊奎松, 2012: 570; 2009: 44; Melvyn, 2010: 72; Pechatnov, 2010: 100-101).

독일의 전후 점령 또한 이와 맞물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후 독일 처리에서 처음에 프랑스는 소련과 같은 입장을 공유했는데, 독일 제국을 다수의 중소규모 국가로 해체하고, 전쟁배상금을 요구하며, 핵심 공업지역

인 루르에 대한 국제적 공동관리 체제를 수립할 것을 원했다(Schwarz, 2010). 그러나 루르의 장악을 중시한 영국은 루르 공동 관리 요구를 거부했고, 연합국들은 전쟁배상의 요구 또한 거부했으며(미-영-불 장악 지역의 산업설비를 전쟁배상금 형태로 소련 점령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도 중단), 독일 제국 해체의 구상은 소련 자신이 폐기하였다(Schwarz, 2010; Pecahnov, 2010). 독일 점령 구상에서 고립될 것을 우려한 처질이 미-소에 맞서 독일 점령의 한 주체로 포함시킨 프랑스는 소련과 공감대가 있던 첫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루르 지역의 저렴한 석탄 공급을 보장받고 루르를 감독하는 국제 체제 참여를 보장받으며 서독을 감시할 수 있는 고등위원회의 권한을 보장받고, 북태평양 조약에 의한 안보를 보장받으면서 점차 앵글로색슨 정책 지지로 돌아섰다.²¹ 분단 독일이라는 구상도 프랑스의 애초의 요구에 어느 정도는 합치하는 것이었다(Schwarz, 2010; 144).

소련의 독일 점령 정책은 모순적이었는데 독일에 대한 전쟁배상의 요구가 한편에 있고 연합국의 ACC에 협조해 공동관리하에 통일 독일을 유지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Schwarz, 2010: 147). 연합국과 갈등이 벌어지면서 스탈린의 독일 점령 구상은 셋 사이에서 동요했다. 첫째로 통일된 친 소련 독일을 세우는 것(이를 위해 독일 공산당이 사민당과 통합해 사회주의통일당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둘째, 탈무장하고 중립적인 독일을 세워 서방과 소련 세력 사이의 완충지로 삼는 것, 셋째, 최소 강령으로서 소련 점령지에 피후견 국가를 수립해 소련이 유럽 중심부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배상금에 대한 거부는 이어 재건을 위한 차관이나 브레튼우즈체제 가입 등을 모두 어렵게 만들었고 그만큼 '3강' 구도 속에 남는 것의 이점이 줄어들어 감미하는 것이었다(Pechanov, 2010: 103).

유럽 정세가 소련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중국 동북문제에서는 반대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소련의 압박이 커졌다. 충칭에 파견되어 국민당과 협상을 주도

²¹ 알타 회담에서 루즈벨트와 스탈린은 식민국가로서 프랑스가 세계에 기여한 바 없으며,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신탁통치 실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완전히 일치했다. 그러나 전후 구상이 바뀌면서 불가피하게 프랑스를 파트너로 다시 인정하고 인도차이나에서의 기존 권익 유지를 미국이 승인하게 되면서 그 남겨진 식민주의의 후과는 베트남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Gardner, 2008: 130-132).

하던 저우언라이는 1946년 들어, 중국 공산당이 동북을 독자적으로 독점하는 안에서 크게 후퇴해 마셜의 중재를 통해 동북 문제에서 1/3의 지분만을 유지한다는 국민당-공산당 공동 점유안으로 물러서게 되었는데 이조차 국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공산당은 북만주 지역까지 밀려나게 된다(楊奎松, 2012: 571). 마셜 중재 이후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평화 신단계가 가능하다는 고무된 의식이 당내에 지배적이었으나, 잠시 비켜 관망하던 마오쩌둥은 복귀해 군대를 국민당 편제에 종속시켜 국가군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동의를 파기하고 강경한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楊奎松, 2012: 552-565; 2005: 240-243; 金冲及, 1996: 756-757; 판초프·레빈, 2017: 495-507). 이는 소련의 대 중국 정책 구상이 의도와 비껴 나가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국민당의 비협조와 공산당의 현실 노선 사이에서 마셜의 중재는 실패하고 마셜은 1946년 12월18일 중국을 떠났다. 소련이 만주에서 공식적으로 철수(소련 조차지로 돌려받은 뤼순반도에는 남아 있었다)한 1946년 4월 말 이후 국공 내전의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그 후에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중단된 것은 아니나 마셜 중재 같은 방식이 되풀이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이 본격화한다(楊奎松, 2009: 45-47). 처음에 소련의 구상 중 하나는 중공군이 동북3성을 ‘완전독립’시키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화북 화중에서 군대를 몰아서 동북을 완전 점령해 여기에 고립해 독립국가 수립하면 소련의 방어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구상할 때 산하이관 이남의 중원 지역에 공산당의 군대가 남아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오쩌둥이 내전으로 끌고 갈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미소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고조되는 계기는 1947년 1월 폴란드 총선이였다. 폴란드 망명 정부를 포함한 연립정부 대신 친소 정부 수립을 추진한 소련에 대해 미국의 반발이 커졌다.²² 이는 반대편에서 극동에서 미국이 독자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분단의 방향이 시동되는 변화와도 맞물린다. 서와 동의 변화는 강하게 연동되기 시작했다.

²² 폴란드 문제는 독일 전후 처리 문제와도 연결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포츠담 합의에 기반해 소련은 소련의 동쪽 영토를 러시아로 넘기는 대가로서 독일 동부 영토를 (연합국에 상의 없이) 폴란드에 넘겼는데 이로서 독일 전체 영토 중 소련 점령 비율이 40%에서 16%로 축소되어 이는 이후 독일 점령정책에서 소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Schwarz, 2010: 147).

유럽과 아시아에서 ‘두 개의 적’과 싸운 스탈린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사반세기 후에 독일이나 일본의 제국주의 내지 군국주의가 부활하여 폴란드나 한반도를 대소련 공격의 회랑이나 도약대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미국제국주의가 뒤에서 밀어줄지도 모를 일이었다. 월슨적 정치이념과 스탈린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충돌한 것이기에, 안전보장의 중요도는 차이가 있어도 폴란드 문제와 한반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같았다(오코노기 마사오, 2019: 645).

이런 정세 변화 속에서 1947년 3월 12일 트루먼의 냉전 선언이 발표되었다. 유럽에서 상황의 변화는 극동에도 영향을 끼쳤고 만주 점령 정책에 대한 소련 입장을 수시로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냉전 선언의 맥락에서 이해되듯이 역설적이게도 냉전의 주무대가 ‘유럽’으로 설정됨으로써 극동은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의 우려가 줄어들었고 중국의 경우에도 군사적 대치가 미국의 개입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고조되었다(楊奎松, 2012: 591-592).²³

3) 분기가 확장하면서 중국 변수의 무게가 커짐

1947년 말에서 1948년으로 넘어가면 독일 통일을 4개국 공동의 방식이 아니라 영미 점령 지역에 프랑스 점령 지역을 통합하고, 이 지역을 별로 국가로 수립해 산업 강국으로 재건해 유럽과 통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Pechatnov, 2010: 106). 마셜플랜이 이런 맥락에서 등장했는데, 그렇지만 마셜플랜 구상 시점까지도 미국은 아직은 두 개의 독일을 분리시켜 공고화하고자 하는 구상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서독 구상은 아직은 각 점령지역에서 건립한 국가들의 ‘연방’의 구상 속에 남아 있었고(Schwarz, 2010: 142), 마셜플랜을 논의하기 위해 1948년 6월 파리에서 소집된 외상회담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것은 소련의 몰로토프 외상이었고, 이것은 미국과 프랑스가 16개

²³ 종전 전부터 이후 몇 년간 중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변동함에 따라 극동 지역의 정치정세도 크게 요동쳤다. 한반도에 대한 전후 점령 구상은 중국 지정학을 중시한 최초 시기에는 4개국 점령 계획안으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중국 본토를 활용한 일본 공격안이 맥아더 사령부의 입장에 따라 태평양 섬들을 근거지로 삼은 일본 본토 직접 공격 구상으로 바뀌면서 중국 지정학 중요성이 줄어들었고, 한반도에 대한 4개국 점령 구상 또한 약화되었으며(오코노미 마사오, 2019: 186), 이는 한반도에서 중재자 없는 대립을 격화시켰다.

국을 끌어들이며 CEEC, ECA, OEEC 건립으로 나아가는 빌미를 주었다(Hitchcock, 2010: 158). 이어진 베를린 봉쇄는 소련의 결정적 오판으로 평가되는데, 서독 지역의 화폐개혁 논의를 위해 베를린 회의 개최를 봉쇄함으로써 서방의 결정을 되돌리려는 압박으로 시작한 이 봉쇄는 군사적 대치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서독 건국을 기정사실화해 독일을 중심으로 서방 경제를 통일시키는 계기가 되었고(Pechatnov, 2010: 107), 더 나아가 영국 외상 베인이 (의회 승인 난점 때문에 거부 태도를 보인) 미국을 압박해 NATO 수립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되었다(Hitchcock, 2010: 169). 한반도에서는 1947년 5월 이후 북쪽에서 시작된 단독 건국의 흐름이 고착화해 가기 시작했고 유럽의 정세와 맞물려 파리 외상회담 결렬 후 1948년에 들어서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었다(오코노기 마사오, 2019: 651).

한반도 분단과는 별도로 중국에서 소련의 방침은 1949년 초까지도 전면 내전에 제약을 가해 중국 공산당을 일정한 지역 세력으로 묶어 두고 장제스 국민당을 활용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그 중요한 목적은 미국과의 대치를 피하고자 한 데 있었다. 그렇지만 ① 장성이북을 독립하고, 중공이 관내에서 나와서 동북에만 집중해 소련의 방어선이 되는 방식과 ② 마셜이 제안한 프랑크스식 연합정부의 수립, 이를 통해 통일을 실시하고 단일 군대를 수립한다는 두 가지 정책이 연이어 실질적으로 실패하면서, 소련이 최종적으로 개입하고자 한 것은 내전이 장강(양자강)을 넘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었다. 소련은 공산당 부대의 장강 도강이 미국 파병의 빌미가 된다고 보고 도강을 막고 ‘남북조’ 구도를 제안 하였으나 1949년 4월 23일 공산당은 이 중재 의견을 거부하고 장강을 도강하고 국민당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하였다(楊奎松, 2012: 595). 중국문제에 대한 스탈린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은 바로 이 장강 도강의 시점이었다(와다 하루끼, 2014: 82). 이후 국민당을 따라 철수하지 않고 난징에 남아 있던 스트레이든 주 중 대사와 공산당 사이의 막후 협상은 지속되었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남길 수는 없었다.

3. 냉전과 동아시아: 통합적 비교에 따른 정세적 설명

냉전의 동아시아적 궤적을 살펴보면 이 역사에 대해 한편에서는 우연한 사건들의 연쇄로 설명하고 싶은 유혹과 다른 한편에서 구조적 제약에 의해 규정된 역사로 설명하고 싶은 유혹을 번갈아 가며 느끼게 된다. 구조의 특성은 점점 더 공고화의 과정을 겪었지만 거기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반복되는 ‘기원의 역사’라는 특성을 보인다.

여기에는 많은 사건들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지역 전체’ 그리고 글로벌 국가간체계의 동학까지 중첩되어 작동하였다. 이런 모순적 흐름들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성을 특히 두드러지게 키워 낸 것은 중국이라는 변수였고 이 변수는 동아시아 냉전 구도의 특수성에 매우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그렇지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좀 더 긴 시간 속에서 보면 루즈벨트에서 트루먼으로 이어진 사이에 많은 변화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 기본적 특성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뉴딜과 탈식민지적 발전주의가 착근되었고 케인즈적 브레튼우즈 체제에 기반한 세계경제의 부흥이 이루어졌다. 그에 앞서 1930년대 미국 국내적 뉴딜 체제의 형성, 더 앞서 가자면 법인혁명/경영혁명/금융혁명에 의한 미국적 축적체제의 형성이 이미 잠재적으로 방향을 잡아 놓은 구조적 제약은 이미 글로벌 뉴딜로 나아가는 틀을 작동시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틀에 소련과 유럽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는 전쟁 상황 속에서는 미정이었다고 여기에 중국이라는, 몰락하였지만 해체되지 않은 제국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구조적 제약은 사건들의 복잡한 연쇄 속에서 현실화하였다.

구체적 역사적 궤적은 처음 구상대로 진행될 수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 처음에 작아 보이던 차이는 이후 점점 더 분기를 크게 벌여 놓았고 초기의 작은 특징들은 이후의 궤적을 규정하는 데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선택지가 정해지기 전 사건들의 연쇄와 조합가능성과 그 이후의 의미는 매우 달라졌고, 이것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분기를 만들어 내는 상이한 변화의 작용들은 종전시기까지만 작동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도 몇 년간 지속되었다. 구조적 제약이 커지면서 분기가 가능한 폭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궤적의 방향이 완전히 결정되었던 것은 아니

다. 1946년 이후에도 계속 누적된 사건들은 그 궁극적 종결을 일본통치방식의 변경/조선반도 정세 변화/마셜플랜/베를린봉쇄/소련의 이탈과 코민포름 수립/중화인민공화국 수립/트루먼 정부의 NSC-68 계획 수립의 연쇄 속에서, 그리고 결정타로서 한국전쟁에서 찾아냈다(다우어, 2009; 션즈화, 2010; 오코노기 마사오, 2019; 川島眞·服部龍二, 2007; Hichcock, 2010; Hunt, 2007: 122-128; Guthrie-Shimizu, 2010; Schwarz, 2010; Pechatnov, 2010).

이런 변화가 궁극적으로 최종 봉합을 이룬 계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변화의 귀결이 미국 헤게모니의 국가간체계의 특징으로서 ‘미국화’로 귀착된 계기를 찾자면 그것은 마셜 플랜의 시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Hichcock, 2010). 앞서도 잠시 이야기했듯이 개별 국가들이 ‘주체’로서 고유화의 시도 속에서 평준화 또는 특이하게 동류화의 동학을 작동시킨 것과 달리, 마셜 플랜은 유럽 강대국들에 대해서조차 진정한 ‘초민족적’ 동학으로서 ‘동형화’의 동학을 작동시켰고 그렇게 ‘서방(the West)’을 탄생시켰다(Hichcock, 2010). 유럽의 마셜 플랜과 동형적인 것이 독일의 군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치된 일본 점령을 위한 총사령부였는데, 이 총사령부가 점령 후 실시한 ‘민주혁명’은 치안유지법 체제 해체, 헌법 자유주의화, 재벌해체, 농지개혁, 국가신도 철폐 등을 포함한 ‘급진적’인 것이었는데 그렇지만 그 방식은 전체주의적 방식의 민주주의 이식이라는 ‘신식민주주의적 혁명’의 방식을 띠었다(다우어, 2009: 94, 266). 전후 체제로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미국화’의 방식이 일본에 관철된 결과는 조지 애치슨이 말했듯이, “‘미국의 기계뿐 아니라 그 사상까지도 포함해서 미국 것을 일본이 흉내내기 시작하는 시대’의 여명을 알리는 것”이었다(다우어, 2009: 517에서 재인용).²⁴

식민지체제를 해체하고 브레튼우즈 체제로 이동하는 미국의 세계구도에서는 영국 중심의 세계질서의 해체가 소련의 ‘위협’보다 훨씬 현실적 문제였고, 소련은 오히려 이 발전 프로젝트의 틀 내에서 충분히 관리될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미국에 도전했던 유럽의 후발국가나 사회주의

²⁴ 20세기 초부터 미국화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해간 과정에 대해서는 테일러(2005), 아리기(1994: 116-125), Hunt(2008: 79-150)를 보라.

국가, 그 외의 탈식민운동 속의 국가들이 심지어 세계화 시기 이후에도 루즈벨트가 구상해 착근시킨 이 20세기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코즈모폴리탄적’ 국가간체계의 질서(이는 동시에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로의 재편을 포함)에 대한 유의미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하면²⁵ 회고적으로 충분히 납득될 만한 평가일 수 있다.

‘유럽의 협조’라는 비제도적 구도 속에서 유지된 영국 해계모니 국가간체계 질서는 영토국가들의 확대와 ‘위험한 계급들’의 도전 때문에 더 지속될 수 없었고(아리기, 2014; 폴라니, 2009) 20세기 미국 해계모니는 이 문제를 지양하는 새로운 국가간체계 질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탈식민주의적 지향을 갖는 두 개의 거대한 영토제국의 협력(물론 미국의 우위 하에서)이 이 새로운 질서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알타 협약으로 상징되는 두 영토제국은 ‘대립’의 외양만큼이나 ‘협력’을 위한 공유점 또한 컸다. 그리고 ‘세력권’으로 정의되는 이 새로운 국가간체계 질서는 거의 모든 면에서 ‘민족국가 자율성’과 ‘제한 주권’을 결합하는 독특한 ‘다자주의적 틀’이었다고 할 수 있다. UN총회와 안보리의 이중성이 그렇고, 주권국가와 주둔군(미국과 소련 모두) 체제의 이중성, 탈식민화를 세력권 구상과 연결하는 절차(신탁통치에서 피후견국가까지) 등 모든 면에서 이중성을 담은 탈식민주의적 ‘발전주의’는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었다.

물론 이처럼 폭넓은 공유점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단순히 소련이 미국의 자본주의적 국제질서 구도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아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사회적 갈등과 투쟁은 19세기 이전처럼 단순히 체계의 카오스의 귀결물이 아니라 그 체계의 카오스와 동시적이거나 더 나아가 체계의 카오스에 선행해 카오스를 촉진시키는 경향을 보인다(아리기, 2014). 현실사회주의 체제는 위험계급으로서 노동계급, 식민지의 독립과 반제국주의 운동, 새롭게 형성되는 후발 영토국가들의 전쟁수행 능력 등이 주요한 위기 요인으로 등장한 위에 이 독특한 국가간체계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중국 변수는 이레

²⁵ ‘사회파시즘’론이 본격 대두한 1928년의 코민테른 6차대회 이후 1930년대에 소련에서 극좌적 ‘담론’과 구분되는 현실 정치 구도에서 통제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전제로 한 소련의 ‘조국방위’ 외에 ‘대안적 국제질서관’이 존재했었는지는 의문이다(맥터모트·에그뉴, 2009: 144-155).

적으로 두드러진다. 일찍이 1928~1934년 코민테른 6차대회 이후의 격렬한 ‘극좌적 언설’에도 불구하고 코민테른이 실제로 기존 국제질서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세계혁명을 위한 준비를 했던 적은 없고 이 시기에 실질적 ‘봉기’를 일으킨 것은 거의 중국이 유일했다고 할 수 있다(백터모트·애그뉴, 2009: 150-170).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후에도 중국은 코민테른과 소련의 노선에도 ‘불구하고’인 동시에 그에 ‘힘입어’ 결국 단독 집권에 이르게 되는데, 어쩌면 이 중국의 예외성이 2차대전 전후해서 형성된 미-소 협력의 국가간체제 질서의 ‘공유점’보다 ‘대립점’에 주목하게 만든 일정한 착시효과의 출발점이 아니었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후 소련도 중국도 브레튼우즈 체제에 직접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질서를 전복하거나 확실히 그 ‘외부’에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1941년 이후 과정, 특히 얄타 협정과 트루먼 등장 이후 과정을 보면 최초 구상이 그대로 진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루즈벨트의 처음 구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것일까? 동아시아의 위치에서 보자면 그 결과는 너무나 멀어져서 최초의 구상을 짐작하기도 어려울 수 있지만 전지구적 특히 유럽의 시각에서 보자면 루즈벨트의 최초 구상은 그 기획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일 수도 있다. 동아시아 구도내에서조차 중국혁명에 대한 ‘봉쇄’를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미중협력체제로’의 보완적 연속으로 해석할 여지가 큰 만큼(이남주, 2020: 19-21), 변이 파동의 폭이 생각처럼 크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동아시아는 그 자체 고정된 물화적 실체가 아니라, 이 모든 변화와 동화와 동류화와 동형화가 교차한 시공간이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역사 서술은 하나의 서술로 단순화할 수 없는 진정한 ‘문제사’의 대상으로 남는다.

IV. 맺음말

우리는 이 글에서 20세기 세계체제 변동에서 국가간체제의 질서가 미국 주도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 그리고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변동이 이 새로운 국가간체제 질서의 형성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서 이를 시간대의 중첩과 사건들의 연쇄의 과정을 통해 설명해 보려 했다.

이 글의 요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대전을 계기로 영국헤게모니에서 미국헤게모니로 전환하는 국가간체계 질서의 전환이 본격 추진되며 여기에 동아시아의 지정학과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이라는 역사 과정이 맞물려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이 역사과정을 조명하려면 개별 국가별 설명이 아니라 ‘유라시아대륙 전체’의 변동이라는 공간적 관점이 필요해진다. 이처럼 공간적 관점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이 공간 내에 여러 복잡성이 작동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비교역사사회학의 전략 중에서 세계체계 분석이 사용한 포괄적 비교와 통합적 비교의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동아시아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겪은 독특한 역사적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비유럽적인 동시에 유럽적인 특징을 지닌 일본의 독특한 경험과 그에 대한 인근 국가들의 ‘동류화’의 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이 동류화 시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의 국가건립 과정인데, 이는 미국 헤게모니 질서 수립의 한 요소로서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또한 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비예견적인 궤적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근대 국가 수립에 미달한 20세기 초 중국은 미국-소련-일본-독일의 지정학적 역학의 작동 속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고, 특히 소련의 국가형성 및 대외 전략의 고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쑨원 시기의 국민당 개조, 우한 정부 중심의 통일 시도, 장제스와 항일 통전, 만주 지역을 중국 공산당 중심의 방어벽으로 구상, 동북을 연합정부 통치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장강을 중심으로 남북조 분할의 구상의 시도들로 이어진 소련의 대 중국 정책은 그 자체가 한편에서 국민당-공산당의 대립 속에서 형성되는 중국 근대국가 수립의 중요한 ‘내부 요인’으로 작용했고, 다른 한편에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위한 소련-미국 협력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늘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등장한 전후 국가간체계의 질서는 ‘현실 사회주의’ 체제들을 감싸안으면서도 대립하는 독특한 질서의 구도를 만들어 냈다.

이 긴 과정의 검토는 20세기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을 발발한 종합적 동학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했다. 해방 후 한국 사회에서 여러 사회세력이 유의미하게 찾아낼 수 있는 선택지와 돌파구는 매우 한정되고

좁았지만 그럼에도 변화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그 복잡성에 대한 검토 위에 서지 않고 의지와 신념에 의해 복잡한 정세를 돌파할 수 있다고 믿었던 판단의 단순함에 있었을 수 있다.

투고일: 2020년 10월 15일 | 심사일: 2020년 11월 24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3일

참고문헌

- 가토 요코 저. 김영숙 역. 2012.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어문학사.
- 강성현. 2017. “미국의 ‘점령형 신탁통치’와 냉전적 변형: 조선, 미크로네시아, 류큐제도를 중심으로.” 강성현·백원담 편. 『종전에서 냉전으로: 미국 삼부조정위원회와 전후 동아시아 ‘신질서’』, 65-110. 진인진.
- 곽기병. 2017. “원탁에 둘러앉은 외교관과 군인들: 극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미국 삼부 조정위원회의 통치 기제, 1944~1947.” 강성현·백원담 편. 『종전에서 냉전으로: 미국 삼부조정위원회와 전후 동아시아 ‘신질서’』, 29-64. 진인진.
- 그린버그, 우디 저. 이재욱 역. 2018. 『바이마르의 세기: 독일 망명자들과 냉전의 이데올로기적 토대』. 회화나무.
- 김윤태 외. 2017. 『발전국가: 과거, 현재, 미래』. 나남.
- 김형중. 1989. “신해협명의 전개.”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편, 『강좌 중국사 VI: 개혁과 혁명』. 지식산업사.
- 나현수. 1989. “제1차 국공합작과 북벌.”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편. 『강좌 중국사 VII: 신질서의 모색』. 지식산업사.
- 다우어, 존 저. 최은석 역. 2009. 『패배를 껴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과 일본인』. 민음사.
- 란코프, 안드레이 저. 김수빈 역. 2013. 『리얼 노스코리아』. 개마고원.
- 마키하라 노리오. 박지영 역. 2012. 『민권과 헌법』(이와나미 일본근현대사 시리즈2). 어문학사.
- 맥더모트, 케빈·제레미 애그뉴 저. 황동하 역. 2009. 『코민테른: 레닌에서 스탈린까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역사』. 서해문집.
- 모택동(마오쩌둥) 저. 김승일 역. 2002. “신민주주의론”(1940. 1.). 『모택동 선집 2』. 범우

- 사. 372-424쪽.
- 민두기. 1989. “민국혁명론: 현대사의 기점으로서의 신해혁명과 5.4운동.”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편, 『강좌 중국사 VI: 개혁과 혁명』, 지식산업사.
- _____. 1994. 『신해혁명사: 중국의 공화혁명(1903~1913)』, 민음사.
- 박태균. 2013.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반하트, 마이클 A. 저. 박성진·이완범 역. 2016. 『일본의 총력전: 1919~1941년 경제 안보의 추구』, 한국학중앙연구원.
- 백승욱. 2006. 『자본주의 역사강의』, 그린비.
- _____. 2017a. 『생각하는 마르크스: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북콤마.
- _____. 2017b. “마르크스에게서 재생산 개념의 형성과 체계의 사고.”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4권 4호.
- _____. 2017c. “장기 20세기와 사회주의 역사적 경험의 회고 러시아혁명과 중국혁명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16호, 18-59.
- _____. 2019a. “동아시아 단절의 담론구성체 형성의 맥락에서 살펴본 3.1운동의 사상사적 전환의 공백.” 『사회와역사』 121집, 39-92.
- _____. 2019b. “‘신시대’와 중국의 역사 다시 쓰기: 일국사와 지역사이 경계에서.” 『중국사회과학논총』 창간호(성균중국연구소), 6-36.
- _____. 2019c. “세계체계 분석의 한 시대가 저물다.” 『한겨레신문』 2019년 9월 6일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908683.html>) (검색일: 2020. 10. 15.)
- _____. 2020. “지금 다시 마르크스주의의 근본 질문을 재개해야 할 이유: 알튀세르와 발리바르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과 사회주의라는 질문.” 『마르크스주의 연구』 17권 2호, 12-39.
- 백원담. 2013. “한국전쟁과 동아시아 상의 연쇄.” 백원담·임우경 편.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15-68. 문화과학사.
- 상빙. 2013. “신해정변과 일본.” 배경한 편. 『동아시아 역사 속의 신해혁명』, 한울.
- 서면, 프란츠 저. 장을병 역. 1987. 『현대국제정치론: 패권주의를 중심으로 I』, 일일서각.
- 선즈화 저. 최만원 역. 2010.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 슈트렉, 볼프강 저. 유강은 역. 2018. 『조종이 올린다: 자본주의라는 난파선에 관하여』, 여문책.
- 스카치플, 테다 저. 한창수·김현택 역. 1982. 『국가와 사회혁명: 혁명의 비교연구』, 까치.
- 쑨원 저. 김승일 외 역. 2000. 『삼민주의』, 범우사.

- 아리기, 조반니 저. 1994. 『맑스주의의 20세기, 미국의 20세기』. 로빈 블랙번 편, 김영희 외 역. 『몰락 이후』, 92-144. 창작과비평사.
- _____. 강진아 역. 2009.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길.
- _____. 저. 백승욱 역. 2014. 『장기 20세기』(개정판). 그린비.
- 아리기, 조반니·비버리 실버 편. 최홍주 역. 2008. 『체계론으로 보는 세계사』. 모티브북.
- 야마무로 신이치 저. 임성모 역. 2003. 『국민국가 형성의 삼중주와 동아시아세계』. 『여럿이며 하나인 아시아』. 창비.
- _____. 정재정 역. 2017. 『러일전쟁의 세기: 연쇄시점으로 보는 일본과 세계』. 소화.
- _____. 정선태·윤대석 역. 2018.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소명출판.
- 오코노기 마사오 저. 류상영 외 역. 2019. 『한반도 분단의 기원』. 나남.
- 와다 하루끼 저. 남기정 역. 2014. 『북한 현대사』. 창비.
- 왕효추 저. 신승하 역. 2002. 『근대 중국과 일본: 타산지석의 역사』. 고려대학교출판부.
- 월러스틴, 이매뉴얼 저. 강문구 역. 1996. 『자유주의 이후』. 당대.
- _____. 1999. “세계체제: 위기는 있는가?” 이매뉴얼 월러스틴·테렌스 K. 홉킨즈 편, 백승욱·김영아 역. 『이행의 시대』. 창비.
- _____. 저. 백영경 역. 1999a. 『유토피스틱스: 또는 21세기의 역사적 선택들』. 창비.
- _____. 저. 나종일 외 역. 1999b. 『근대세계체제 I: 자본주의적 농업과 16세기 유럽 세계 경제의기원』. 까치.
- _____. 저. 유재건 외 역. 1999c. 『근대세계체제 II: 중상주의와 유럽 세계경제의 공고화, 1600~1750년』. 까치.
- _____. 저. 김인중 외 역. 1999d. 『근대세계체제 III: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거대한 팽창의 두 번째 시대, 1730~1840년대』. 까치.
- _____. 저. 백승욱 역. 2001.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 창비.
- _____. 저. 이광근 역. 2005.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 당대.
- _____. 저. 박구병 역. 2017. 『근대세계체제 IV: 중도적 자유주의의 승리, 1789~1914』. 까치.
-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
- 윤소영. 2020. 『한국사회성격논쟁 세미나 I』. 공감.
- 이남주. 2020.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지역협력의 모색: 샌프란시스코체제의 동학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125호, 12-39.
- 이노우에 가쓰오 저. 이원우 역. 2013. 『막말. 유신』. 어문학사.
- 이승휘. 2018. 『손문의 혁명』. 한울.

- 중국공산당중앙당사연구실 저. 홍순도·홍광훈 역. 2016. 『중국공산당역사 제1권 상』, 서교출판사.
- 테일러, 피터 J. 2005. “해계모니 순환으로서의 ‘미국의 세기’.” 백승욱 편.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세계체계 분석으로 본 미국 해계모니의 역사』, 52-82. 그린비.
- 틸리, 찰스 저. 박형신·안치민 역. 1999. 『비교 역사 사회학: 거대구조, 폭넓은 과정, 대규모 비교』, 일신사.
- 판초프, 알렉산더·스티븐 레빈 저. 심규호 역. 2017. 『마오쩌둥 평전: 현대 중국의 마지막 권력자』, 민음사.
- 폴라니, 칼 저. 홍기빈 역. 2009. 『위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길.
- 하라다 게이이치 저. 최석완 역. 2013. 『청일·러일전쟁』(이와나미 일본근현대사 시리즈3). 어문학사.
- 후카마치 히데오 저. 박제이 역. 2018. 『쑨원: 근대화의 기로』, AK.
- 金冲及 主编. 1996. 『毛泽东传(1893~1949)』, 中央文献出版社.
- 戴茂林·李波. 2017. 『中共中央东北局(1945~1954)』, 辽宁人民出版社.
- 陶文钊·杨奎松·王建明. 2009. 『抗日战争时期中国对外关系』,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楊奎松. 2005. 『革命 2: 毛泽东与莫斯科的恩恩怨怨』, 广西师范大学出版社.
- 楊奎松. 2009. 『中华人民共和国建国史研究 2』, 江西人民出版社.
- 楊奎松. 2010. 『中間地帶的革命: 國際大背景下看中共成功之道』, 山西人民出版社.
- 楊奎松, 2012. 『革命 1: “中间地带”的革命—国际大背景下看中共成功之道』, 广西师范大学出版社.
- 楊奎松, 2013. “孙中山的西北军事计划及其夭折.” 『民国人物过眼录』, 四川人民出版社.
- 楊奎松 主编. 2006. 『冷战时期中国对外关系』, 北京大学出版社.
- 汪朝光. 2010. 『1945~1949: 國共政爭與中國命運』,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汪朝光. 2016. 『和與戰的決策: 戰後國民黨的東北決擇』,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川島眞·服部龍二 編. 2007. 『東アジア國際政治史』, 名古屋大學出版會.
- Adams, Julia, Elisabeth S. Clemens, and Ann S. Orloff. 2005. “Introduction: Social Change, Modernity, and the Three Waves of Historical Sociology.” In J. Adams, E. S. Clemens, and A. S. Orloff, ed. *Remaking Modernity: Politics, History, and Sociology (Politics, History, and Culture)*, 1-72.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Arrighi, Giovanni. 1999. “Globalization and Historical Macrosociology.” In Janet L. Abu-Lughod, ed. *Soci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Continuities and*

- Cutting Edges*, 117-133.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righi, Giovanni, Takeshi Hamashita, and Mark Selden. 2003. "Introduction: The rise of East Asia in regional and World Historical Perspective." *The Resurgence of East Asia: 500, 150 and 50 Year Perspective*. Routledge.
- Culver, John C. and John Hyde. 2001. *American Dreamer: A Life of Henry A. Wallace*. W. W. Norton & Company.
- Devine, Thomas W. 2013. *Henry Wallace's 1948 Presidential Campaign and the Future of Postwar Liberalism*.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Duménil, Gérard and Dominique Lévy. 2018. *Managerial Capitalism: Ownership, Management and the Coming New Mode of Production*. Pluto Press.
- Gardner, Lloyd. 2008. "FDR and the "Colonial Question." In David B. Woolner, Warren F. Kimball, and David Reynolds, eds. *FDR's World: War, Peace, and Legacy*. Palgrave.
- Gerhardt, Uta. 1999. "A World from Brave to New: Talcott Parsons and the War Efforts at Harvard University." *Journal of History of Behavioral Sciences* 35(3), 257-289.
- Guthrie-Shimizu, Sayuri. 2010.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Cold War, 1945-1960."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I: Origins*, 244-26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nrikson, Alan K. 2008. "FDR and the "World-Wide Arena." In David B. Woolner, Warren F. Kimball, and David Reynolds, eds. *FDR's World: War, Peace, and Legacy*. Palgrave.
- Hitchcock, William I. 2010. "The Marshall Plan and the Creation of the West."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I: Origins*, 157-17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nt, Michael H. 2007. *American Ascendancy: How the United States Gained & Wielded Global Dominance*.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Leffler, Melvyn P. 2010. "The Emergence of an American Grand Strategy, 1945-1952."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I: Origins*, 67-8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Michael, Philip. 1990. "Incorporating Comparison within a World-Historical

- Perspective: An Alternative Comparative Meth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5, 385-397.
- McMichael, Philip. 2000. “World-Systems Analysis, Globalization, and Incorporated Comparison.”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VI, 3, fall/winter, 68-99.
- Michael Schaller. 2008. “FDR and the “China Question.” In David B. Woolner, Warren F. Kimball, and David Reynolds, eds. *FDR’s World: War, Peace, and Legacy*. Palgrave.
- Pechatnov, Vladimir O. 2010. “The Soviet Union and the World, 1944-1953.”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I: Origins*, 90-11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aller, Michael. 2008. “FDR and the ‘China Question’.” In David B. Woolner, Warren F. Kimball, and David Reynolds, eds. *FDR’s World: War, Peace, and Legacy*. Palgrave.
- Schwarz, Hans-Peter. 2010. “The division of Germany, 1945-1949.”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I: Origins*, 133-15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 Alvin Y. and Stephen W. K. Chiu. 1995. *East Asia and the World Economy*. Sage.
- Wallerstein, Immanuel. 1974.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 In *The Essential Wallerstein*, 71-105. The New Press, 2000.
- Wallerstein, Immanuel. 1992. “The West, Capitalism, and the Modern World-System.” *Review* XV, 4, Fall, 561-619.

Abstract

Changes on the Asian Order of the Interstate System in the Era of US Hegemony Building

Seung-wook Baek Chung-Ang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world order of the interstate system precipitated by East Asian geopolitical dynamics just after World War II. First, world hegemonic transition from the UK hegemony to US hegemony after World War II was overdetermined by East Asian geopolitics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ist regimes. To understand the complicated historical process in this region, the Eurasian continental viewpoint is necessary to encompass a space for continuous socialist revolutions from Russia to China, and an incorporated comparison is needed to explain this process as comparative-historical research. Second, Japan was exceptional in the region as a model that was regarded to be emulated as well as to be overcome. 'Becoming the same category' became a significant strategy to catch up with modernity in the region. Third, China, as a typical model of 'becoming the same category', displayed contradictory aspects of emulation of modernity in the region: at first trying to copy Japanese history as its model, but later after the May 4th movement, changing its model for modernity by emulating Soviet experiences. The USSR became an internal main factor for the spiral process of the Chinese revolution, which in turn gave rise to unanticipated impacts on the Cold War trajectory. The Yalta regime and path-breaking Stalin-Roosevelt cooperation went through with the encounter of multiple

historical events in the region and paved the way for the unique path for the East Asian Cold War after the death of Roosevelt and the victory of Chinese Communists.

Keywords | East Asia, inter-state system, Roosevelt, Stalin Maozedong, 'Catching up with same category', Chinese Revolution, Socialism, incorporated comparison

